

2026 우크라이나 진출전략

진출 환경
시장 분석
진출전략



Contents

I. 진출 환경



1. 경제 환경	04
2. 정치(정책) 환경	08
가. 정부 현황	08
나. 주요 정책 및 규제 현황	09
3. 주요 이슈 Pick	11
가. (경제·산업)장기화되고 있는 러-우 사태	11
나. (외교·통상)우크라이나의 EU 통합 추진 정책	13
다. (사회·문화) 심각한 우크라이나 노동력 부족 현상	14

II. 시장 분석



1. 시장 현황	16
가. 시장 특징	16
나. 무역	20
다. 산업	27
라. 투자	29
2. 유망 산업	32
가. 농업	32
나. 소비재 산업	34
다. 방위 산업	36
3. 협력 기회	38
가. 프로젝트	38
나. 공급망(자원개발)	39

III. 진출전략



1. PEST/SWOT 분석	43
2. 진출전략	45
첨부 1. 수출 유망 품목(상품)	51
첨부 2. 수출 유망 품목(서비스)	53
첨부 3. '26년도 주요 정치·경제 일정 및 유망 전시회 캘린더	54

A stylized world map composed of small white dots on a dark blue background, spanning the entire page. The map is centered and shows the outlines of the continents.

I. 진출 환경

1. 경제 환경	04
2. 정치(정책) 환경	08
3. 주요 이슈 Pick	11

I 진출 환경



1. 경제 환경

□ (경제 전망) 러-우 사태로 경제는 쉽게 회복이 어려운 상황임

- 경제성장률은 '23년 5.5%, '24년 2.9%를 기록했으나, '22년 -30.4%라는 급격한 위축을 감안하면 회복 속도가 제한적임
- '25년 경제성장률은 당초 4~5% 수준으로 예상되었으나, 최근 전망치는 하향 조정됨
* World Bank('25년 10월) : 5% → 2.2%, IMF('25년 4월) : 3.5% → 2.0%, 우크라이나 중앙은행('25년 10월) 3.7% → 2~3%
- '26년 경제성장률은 휴전과 전후 재건 효과를 전제로 5~6% 수준으로 예상되었으나, 지속적인 에너지 인프라 파괴로 인한 전력 부족, 노동력 부족 등을 감안하여 2~3%수준으로 전망됨

□ (호재 요인) 러-우 사태 휴전·종전 가능성

- 사태가 휴전·종전될 경우, 경제활동이 정상화되고 외국인 투자·재건 자금 유입이 본격화될 가능성 있음
 - 국제금융기구와 EU의 재건 지원 패키지가 실행 단계에 돌입, 인프라·주택·산업시설 복구 프로젝트 착수될 가능성 있음
 - 전후 재건 과정에서 건설·인프라·에너지·물류 산업 확대 전망
- 국내 소비심리 회복
 - 전쟁이 종식되거나 안정 국면에 접어들 경우, 피난민 귀환과 고용 회복을 기반으로 내수 시장이 점진적으로 확대될 수 있음
 - 특히 건설·소비재·서비스 산업에서 수요가 빠르게 반등할 가능성이 큼

□ (부진 요인) 러-우 사태 장기화 및 안보 불확실성

- 국가 재정 악화와 부채 부담
 - 러-우 사태가 지속될 경우, 생산·물류 인프라 파괴와 인명 손실로 인해 경제활동 회복이 크게 제약될 것으로 전망
 - 지속적인 군사적 위협은 외국인 투자 유입을 지연시키고, 국제 금융시장 접근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

- 대외 원조와 차입에 의존하는 구조가 지속될 경우, '26년에도 재정 및 외채 부담이 경제 성장의 주요 제약으로 작용할 수 있음
- 산업 기반 약화
 - 제조업·광업 등 주요 산업시설이 러-우 사태로 손해를 입어 생산 역량이 많이 축소
- 인구·노동력 문제
 - 전쟁으로 인한 난민 유출, 인구 감소, 전문 인력 부족이 심각한 과제로 대두

□ 주요 경제지표

주요지표	단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인구	백만 명	41.7	41.4	41.0	34.5	34.0	33.3	32.9	33.4
명목 GDP	십억 달러	153.9	156.6	199.8	162.0	181.2	190.7	209.7	224.3
1인당 명목 GDP	달러	3,690	3,780	4,870	4,690	5,330	5,720	6,380	6,720
실질 성장률	%	3.2	△ 3.8	3.4	△ 28.8	5.5	2.9	2.0	4.5
실업률	%	8.5	9.2	9.8	24.5	19.1	13.1	11.6	10.2
소비자물가 상승률	%	7.9	2.7	10.0	20.1	15.3	6.4	7.6	7.6
재정수지(GDP 대비)	%	△ 1.9	△ 5.1	△ 3.4	△ 17.8	△ 20.3	△ 18.7	△ 20.3	△ 18.7
총 수출	억 달러	500.8	492.2	680.9	444.4	360.5	404.1	384.0	409.0
(對韓 수출)	백만 달러	375.9	351.5	299.8	238.5	98.9	174.2	-	-
총 수입	억 달러	604.3	536.7	718.9	552.2	635.1	705.0	817.0	873.0
(對韓 수입)	백만 달러	455.7	497.4	694.5	523.4	660.5	766.1	-	-
무역수지	억 달러	△ 103.4	△ 44.4	△ 37.9	△ 107.8	△ 274.7	△ 300.9	△ 433.0	△ 464.0
경상수지	억 달러	△ 42.1	51.7	△ 38.8	80.0	△ 95.6	△ 137.5	△ 346.2	△ 282.8
환율(연평균)	현자국/US\$	25.85	26.96	27.29	32.34	36.57	40.15	41.59	45.70
해외직접투자	억 달러	25.8	8.4	0.2	△ 2.0	3.4	0.4	-	-
외국인직접투자	억 달러	8.4	60.2	△ 0.4	73.2	5.6	42.5	-	-

주: '25년은 추정치, '26년은 전망치

자료: IMF, IHS Markit, EIU, 한국무역협회, 우크라이나 중앙은행, UNCTAD 등

□ 현지 경제 상황

- (경제성장률) 경제성장률 전망 하향 조정
 - IMF, 우크라이나 '25년 경제성장률 4.1% → 2% 전망('25년 4월)
 - * World Bank('25년 4월) 2.0%, EBRD('25년 4월) : 3.5 → 3.3%
 - 우크라이나 중앙은행은 '25년 경제 회복이 전년보다 더딜 것으로 예상, 연초에는 '25년 경제성장률을 3.6%로 예상했으나, 4월에 3.1%로, 8월에는 2.1%로 하향 조정

우크라이나 정부 및 국제기관별 우크라이나 경제 전망치

(단위: %)

구분	우 경제부	우 중앙은행	세계은행	IMF
2025년	2.5	2.1	2.0	2.0
2026년	2.5	3.7	2.2	4.5

• (소비) 올해 인플레이션 9.7%로 예상

-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 기준금리를 '25년 3월 7일부터 15.5%로 유지하며 긴축적인 통화정책을 지속하고 있음
- 물가 상승, 소득 감소, 피난민 유출로 내수 소비가 위축된 상태로, 소비자들이 필수품 소비를 우선시하는 경향 있음

러-우 사태 전후 물가 비교

품목명	단위	2021년 11월 가격 (UAH/USD)	2024년 11월 가격 (UAH/USD)	증감률(%)
빵	650g	24.7(0.6)	35(0.9)	41.7
버터	200g	49.3(1.2)	104(2.5)	111
우유	900ml	30.9(0.8)	52.3(1.3)	69.3
닭고기	1kg	143.4(3.5)	186.9(4.6)	30.3
돼지고기	1kg	148(3.6)	282(6.9)	90.5
밀가루	1kg	21.1(0.5)	29.9(0.7)	41.7
메밀	1kg	47.3(1.2)	32.6(0.8)	-31.1
파스타	1kg	21.7(0.5)	29.9(0.7)	41.7
식용유	850ml	56(1.4)	66(1.6)	17.9
쌀	1kg	38.3(0.9)	58.2(1.4)	52
설탕	1kg	26.4(0.6)	34.6(0.8)	31.1
계란	10개	38.8(0.9)	78(1.9)	101
비트	1kg	13.9(0.3)	20(0.5)	43.9
양배추	1kg	12.7(0.3)	32.3(0.8)	154.3
감자	1kg	13(0.3)	32.6(0.8)	150.8
당근	1kg	9.2(0.2)	28.3(0.7)	207.6
양파	1kg	12.2(0.3)	18.3(0.4)	50
바나나	1kg	28.5(0.7)	61.5(1.5)	115.8
레몬	1kg	29.5(0.7)	69.1(1.7)	134.2

자료: Slovoidilo

- (민간투자) 군사적 위험, 정치적 리스크로 민간투자 소극적
 - 러-우 사태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심각하고, 복구 재건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나, 군사적 위험과 정치적 리스크 등으로 민간기업 참여는 제한적임
 - 우크라이나 정부는 투자 환경 조성을 위해 관련 규제 완화, 관료주의 최소화 노력을 지속하고 있음
 - * 특히 '25년 7월 30일, 민간투자 유치를 위한 PPP(공공-민간 파트너십) 제도 개선 최종 법률을 채택함. PPP 사업의 사전 준비 절차를 간소화하고, 전반적인 절차를 보다 유연하고 효율적으로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둠. 관련 법 개정으로 향후 수년 내 최대 10억 달러의 민간투자 유치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
- (산업 생산) 대표 산업인 철강·농업 부문의 심각한 타격과 노동시장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음
 - 러-우 사태 이전 대비 철강 생산량은 약 65%, 농업 생산량은 30% 이상 감소함
 - 실업률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24년 기준 14.3%), 전쟁 동원과 이주 등으로 인해 전문 인력 부족 문제가 심각함
 - 국가 생존 전략 차원에서 방위 산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생산과 개발을 육성하기 위해 국방 부문 지출을 634억 달러로 확대함
 - * 국방 부문 지출 국가 예산 대비 GDP 비중 : 26.5% → 31.3%
- (대외교역) 우크라이나의 최근 교역 흐름
 - '24년 우크라이나 수출 규모는 전년 대비 12.1% 증가, 수입 규모는 전년 대비 11.0% 증가함
 - * '25년 8월 기준 수출 규모 전년 동기 대비 0.6% 증가, 수입 규모 전년 동기 대비 16.8% 증가
 - '24년 무역적자 규모 -301억 달러, 전년 대비 9.5% 증가함
 - * '25년 무역적자 규모 -261억 달러, 전년 동기 대비 39.6% 증가
- (투자유입) 재건/복구 사업 관련 투자 증가
 - 러-우 사태로 인해 '21년 투자 금액이 73억 2,000만 달러에서 '22년 5억 3,100만 달러로 급격히 감소함. '23년부터 재건·복구 사업으로 인해 투자 규모가 회복되기 시작했음. '23년 44억 8,500만 달러를 기록했으며, '24년에는 '23년보다 감소한 33억 2,900만 달러를 기록함
 - 주요 투자국은 EU로, '24년 기준 전체 투자의 약 77% 차지
- (투자 진출) 우크라이나 주요 대외 투자 진출 규모
 - 연도별 대외 직접투자는 '20년 2,200만 달러, '21년 -1억 9,800만 달러, '22년 3억 4,400만 달러, '23년 4,200만 달러, '24년 -1억 6,200만 달러임
 - 러-우 사태가 시작된 이후 '22~'23년 대외 투자가 있었던 것은 해외 법인 유지·확장에 최소한의 투자가 이뤄졌던 것으로 추정됨

2. 정치(정책) 환경

가. 정부 현황

□ 계엄령 기간으로 현지 정권 계속 유지 중

- 헌법과 계엄령 연장으로 선거 미시행
 - 현행 헌법은 계엄령 하에서 대선·국회의원 선거 등의 수행을 금지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는 '22년 러시아의 전면 침공 이후 계엄령을 90일 단위로 연장해 오고 있음
 - 이러한 법적 제약과 안보 우려 등으로 인해 예정되었던 '24년 대선은 개최되지 못함. 젤렌스키 대통령은 헌법상 정당한 권위로 임기를 계속 수행 중임
 - 여론조사에서 대다수 국민은 전시 중 선거 개최에 반대하고 있으며, '25년 초 조사에서 60~63%가 전시 선거에 반대한다고 응답함

□ 대대적인 정부 개편

- 전시 상황에서 대규모 정부 개편을 단행
 - '25년 7월 16일 전면전이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경제 및 군사 관리 강화를 위한 대규모 정부 개편을 단행함
 - △ 군사력 강화(국방부 역할 강화, 무기 생산 증가), △ 경제 회복(경제부 역할 강화를 통한 전후 재건과 경제 회복 추진), △ 정부 효율성 향상(부처 수 축소 및 통합을 통한 정부의 효율성 증가)이 정부 개편의 주요 목적임
- 주요 인사이동 및 정부 구조 개편
 - 정부 부처 통합 및 축소 : 이번 개편으로 축소되었으며, 일부 부처가 통합됨. 특히 산업정책부가 국방부로, 농업정책식품부와 환경보호자원부가 경제부로 통합됨
 - * 정부 부처수 21개 → 16개 축소, 현대 우크라이나 역사상 가장 간소화된 내각 구성
 - 주요 인사 임명 : 역대 최장기간 총리를 역임한 데니스 슈미할 대신 제1 부총리, 경제부 장관이었던 올리아 스비리덴코가 총리로 임명됨. 한편, 데니스 슈미할은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됨

나. 주요 정책 및 규제 현황

□ '21~'27년 국가 지역 개발 전략 이행을 위한 '25~'27년 실행계획

- 우크라이나 정부는 지역 개발을 위한 국가 전략 이행을 목표로 '25~'27년 대규모 행동계획을 승인함
 - 총 101개 과제를 포함하며 점검 지표, 실행 일정, 자원(국가·지방 예산 및 국제 자금)을 명확히 규정함
 - EU가 제시한 권고 사항 중 '지역 정책 및 구조적 도구 조정'과 관련된 핵심 권고 사항 중 하나임

전략 목표	주요 추진 방향	인프라 및 시설 구축	지역 경제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합된 국가 형성 • 지역 경쟁력 강화 • 효율적 거버넌스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점령지 재통합 및 지역 개발 촉진 • 교육, 보건, 문화, 사회복지 등 공공 서비스 개선 • 전쟁 참전용사 및 국내 실향민(VPO) 보호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 내 4,500개 안전 교실 설치 • 80만m² 규모 사회주택 건설 • 정신 건강센터 및 지역 안전센터 설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 일자리 창출 • 투자 유치 • 관광 개발 • 디지털 기술 도입

□ 우크라이나 개혁 매트릭스(Reform Matrix 2022~2032)

- 우크라이나는 '24년 6월 5일, 개혁 매트릭스(Reform Matrix 2022~2032) 공식 도입
 - 국제 파트너들이 권장하는 조치 목록과 지속적인 재정 지원을 받기 위해 약속한 것에 대한 효과적인 이행과 관리를 위하여 도입하게 됨
- EU, IMF, 세계은행, 우크라이나 퍼실리티(Ukraine Facility) 프로그램 내에서 권장하는 조치 목록이 포함되어 있음
 - EU : 부채적결 강화, 과두제의 과도한 영향력 제한, 소수 민족에 관한 법률 개혁
 - IMF : 재정·물가·금융 안정 유지, 경제 회복, 기업 지배구조 개선, 공공기관 강화
 - 우크라이나 퍼실리티(Ukraine Facility) : 공공부문 구조 개혁 실행, 기업 환경 개선을 위한 경제 개혁 실행, 경제 성장을 위한 우선 분야 개발
 - 세계은행 : 기업 지배구조 개선, 재생에너지 생산 촉진, 금융 부분 강화, 기업을 위한 자금 조달 접근성 개선 등

Ukraine Facility(2024~2027)

구성	세부 내용	금액	주요 특징·방식
전체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EU가 '24~'27년 동안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 위한 재정 지원 프로그램 	50억 유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가 예산 지원, 투자 촉진, 기술 지원 포함
구성 I : 우크라이나 지원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가 예산 지원 EU 가입 관련 개혁 및 경제 회복 지원 분기별 계획 지표 달성 시 지원 	38억 2,700만 유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출 : 33억 유로 보조금 : 5억 2,700만 유로 국방비용 사용 불가 보조금의 20%(1억 500만 유로) 지역 사용
구성 II : 투자 기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투자자 위험 완화 메커니즘 제공 우크라이나 우선 투자 부문 투자 유치 	6억 9,700만 유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원 대상 : 우크라이나 민간·공공 기업 자금 조달 : EBRD(유럽부흥개발은행), EIB(유럽투자은행) 등 국제 금융기관을 통해 조달
구성 III : 기술 및 행정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부 기술 지원(EU 법제 동기화, 구조 개혁) 국가·지역·지방 정부 기관 역량 강화 시민 사회 지원 대출 이자 보조금 지원(기존 대출 포함) 	4억 7,600만 유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부 및 관련 기관, 시민사회 단체 대상으로 지원

자료: UCCI

3. 주요 이슈 Pick

가. (경제·산업) 장기화되고 있는 러·우 사태

□ 장기화되고 있는 러·우 사태, 경제 회복에 어려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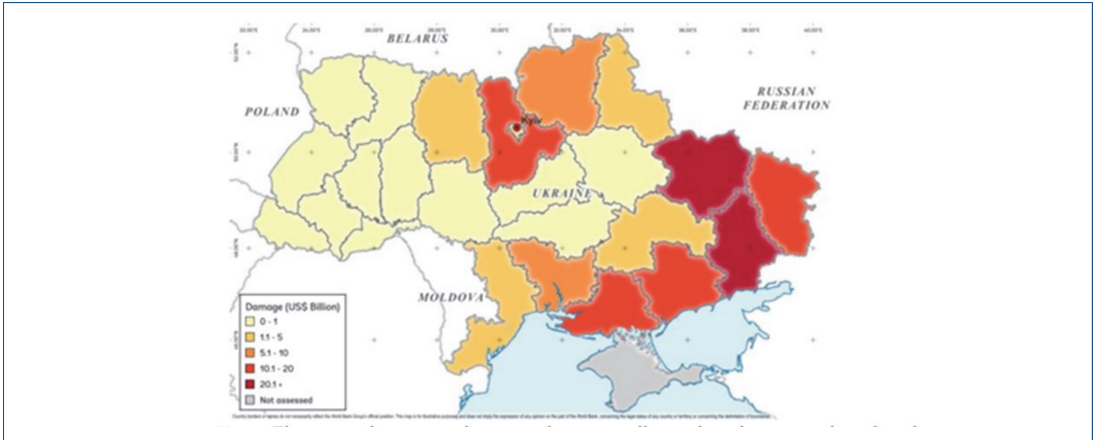
- '22년 2월에 발생한 러·우 사태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영토의 20% 가까이 장악,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우크라이나 경제에도 큰 타격을 주고 있음
- 세계은행은 '25년 2월 25일, 4차 긴급 재건 피해 및 수요 조사(RDNA 4) 발표, 복구 비용을 5,236억 달러로 추산
 - 이는 기존 추정치보다 380억 달러 더 많은 금액임
 - * 직접 피해액은 1,760억 달러, 손실액은 5,888억 달러임

분야		직접 피해				손실				필요			
		RDNA	RDNA	RDNA	RDNA	RDNA	RDNA	RDNA	RDNA	RDNA	RDNA	RDNA	RDNA
		1	2	3	4	1	2	3	4	1	2	3	4
사회 부문	주택	39.2	50.4	55.9	57.6	13.3	17.2	17.4	21.1	69	68.6	80.3	83.7
	교육·과학	3.4	4.4	5.6	13.4	0.5	0.8	6.9	9.6	9.2	10.7	13.9	32.9
	보건	1.4	2.5	1.4	1.6	6.4	16.5	17.8	19.6	15.1	16.4	14.2	19.4
	사회보장·생계	0.2	0.2	0.2	0.4	4.5	4.2	9.4	14.4	20.6	41.8	44.5	38.9
	문화·관광	1.1	2.6	3.5	4.1	19.3	15.2	19.6	29.3	5.2	6.9	8.9	10.5
인프라 부문	에너지·추출물	3.1	10.6	10.6	20.5	12	27.2	54.0	72.3	10.7	47	47.1	67.8
	운송·교통	29.9	35.7	33.6	36.7	26.1	31.6	40.7	46.7	73.8	92.1	73.7	77.5
	통신·디지털	0.7	1.6	2.1	2.2	0.6	1.6	2.3	2.4	3.3	4.5	4.7	5.9
	물공급·위생	1.3	2.2	4	4.6	6.8	7.5	11.6	12.7	5.4	7.1	11.1	11.3
	지방자치단체 서비스	2.3	2.4	4.9	2.9	4.3	3	6.8	6.8	5.7	5.7	11.4	6.9
생산 부문	농업	2.2	8.7	10.3	11.2	28.3	31.5	69.8	72.7	18.7	29.7	56.1	55.5
	상공업	9.7	10.9	15.6	17.5	47.5	85.8	173.2	213.9	20.8	23.2	67.5	64.4
	관개·수자원관리	0.2	0.4	0.7	0.7	0.1	0.3	0.7	0.9	7.5	8.9	10.7	10.9
	재정·금융	0	0	0	0.0	8.1	6.8	5.7	5.2	8	6.8	2.3	2.1
공통 부문	환경·자원·임업	2.5	1.5	3.3	1.7	0.7	0.5	26.5	27.9	1.2	1.5	2.3	2.8
	긴급대응·시민보호	0.1	0.2	0.4	0.4	0.2	0.5	0.5	0.5	0.7	1.5	2.3	2.4
	거버넌스·공공행정	0.1	0.3	0.3	0.4	0	1.4	1.7	2.8	0.2	0.6	0.7	0.9
	폭발물관리				-	73.2	37.6	34.6	29.8	73.2	37.6	34.6	29.8
전체		97.4	134.7	152.5	176.1	252	289.1	499.3	588.8	348.5	410.6	486.2	523.6

자료: World Bank, '25년

- 모든 부문에서 가장 큰 피해는 △ 도네츠크, △ 하르키우, △ 루한스크, △ 자포리자, △ 헤르손, △ 키이우주에서 발생함
- * 이 지역의 직접 피해 총액은 1,270억 달러 이상, 전체의 72%

〈우크라이나 지역별 피해 규모〉



주: '24년 12월 31일 기준
자료: RDNA4

- 현재 인도주의적 지원과 긴급 지원을 중심으로 복구·재건 중임
- 복구·재건 9가지 부문별 우선순위

복구 및 재건을 위한 9가지 부문별 우선순위 영역

분야		핵심 영역
사회부문	주택	주택 및 관련 산업 시설 재건
	교육 및 과학	교육 시설 및 건물 재활
	보건	의료 기반 시설 복원 및 강화
	사회 보호 및 생계	참전용사, 국내 실향민, 사회 보호 기관 및 국가 업무와 관련된 시설, 시스템 및 기반 시설 재건
인프라부문	에너지 및 광업	에너지 및 광업 시스템 및 기반 시설 복원과 보호
	운송	운송 네트워크 및 기반 시설 재활
	물공급 및 위생	물공급, 위생, 관개 및 폐기물 관리 시스템 및 기반 시설재건과 복원
지뢰 제거 및 민간 보호	폭발물 관리	폭발물 잔류물로부터 인명 보호와 안전한 통행 재개를 위해 폭발물 잔류물 정리/관리
	긴급 대응 및 민간 보호	대형 방공호(혹은 대피 시설)를 구축 및 재건, 민방위 체계 강화

자료: RDNA4

- 우리 기업의 영향
 - 우크라이나에 대한 최대 지원국인 미국과 EU가 재건 시장에서 주도권을 확보할 가능성이 높아, 한국 기업이 진출할 기회가 제한적일 수 있음
 - 우크라이나 전자 조달 시스템 Prozorro를 통해 직간접적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것도 가능함. 그러나 프로젝트의 구체적인 정보가 현지어로 작성돼 있거나, 요구되는 문서가 우크라이나 표준에 맞춰 준비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음
 - 정치적 불안정성이 여전히 위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한국 기업들은 진출에 앞서 신중하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나. (외교·통상) 우크라이나의 EU 통합 추진 정책

□ EU 통합의 전략적 중요성

- EU 후보국 지위 부여
 - '22년 6월, 우크라이나는 EU 후보국 지위를 부여받았으며, '24년 6월부터 공식적인 가입 협상 시작
 - 우크라이나는 러-우 사태에도 EU 가입을 위한 개혁과 통합 작업을 진행 중이며, 후보국으로서 EU로부터 경제, 법률, 사회 전반 개혁 지원과 재정 지원을 받게 됨
 - 특히 그동안 국내 정치에서 가장 큰 문제였던 부패와의 전쟁, 사법개혁 그리고 공공행정 효율성 강화에 속도를 낼 것임
- 진행 상황
 - '23년 3월 '우크라이나 플랜'을 통해 국가의(전전)복원과 EU 통합을 위한 로드맵을 제시, 이 계획은 EU 집행위와의 조율을 통해 작성된 것으로, EU 가입을 위해 필요한 개혁을 추진하기 위한 전략적 가이드라인임
 - '24년 2월 '국영기업 거버넌스법(SOE Corporate Governance Law)'을 채택해 △ 기업 거버넌스 개혁, △ 이사회 권한 규정, △ 투명성 제고, △ 견제와 균형 강화를 규정했음
 - '24년 6월 '개혁법'을 통해 주요 금융 범죄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추진함

다. (사회·문화) 심각한 우크라이나 노동력 부족 현상


□ 노동력 부족의 주원인

- 러-우 사태로 인한 인구 이동
 - 러-우 사태로 인해 많은 인구가 해외로 피난 이주
 - * 특히, 젊은 남성들이 징집을 피하고자 EU 국가로 대거 이주 중
 - 우크라이나 통일부는 러-우 사태가 종전 시 해외 피난민의 약 30%만이 귀국할 것으로 예상. 노동력 부족 문제는 단기간에 해소되기 어려우며, 장기적인 과제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함
 - 러시아 점령지 및 최전선 지역에서 안전한 서부·중부 지역으로 이동한 국내 피난민도 증가하고 있음. 상당수는 기존 직종을 잃고 임시·비공식 일자리에 종사하거나 실업 상태로 남아 있어, 국가 전체 노동력 활용도가 저하되고 있음
 - * 유엔난민기구 '25년 2월 기준 해외 난민 수는 690만 명, 국내 난민 수는 370만 명
- 징집에 따른 인력 감소
 - 현재 25~60세 남자를 징집 대상으로 규정하여 많은 젊은 남성들이 전선에 투입되었음
 - 경제·산업 분야의 핵심 인력 부족을 완화하기 위해 일부 기업 종사자에 한해 징집을 유예할 수 있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다만, 신청할 수 있는 인원이 제한적이라 전문 인력이 현저히 부족한 상황임
- 노동력 부족의 경제적 영향
 - (산업 생산성 저하) 주요 산업 분야에서 노동력 부족으로 인해 생산성이 저하되고 있으며, 이는 전반적인 경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
 - (서비스 부문 위축) 의료, 교육, 건설 등 서비스 부문 인력 부족의 심화로 국민의 생활수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



Ⅱ. 시장 분석

1. 시장 현황	16
2. 유망 산업	32
3. 협력 기회	38



II 시장 분석



1. 시장 현황

- 세계3대 곡창지대를 보유한 전통적 농업국가로 러-우 사태 전 세계5대 곡물 수출국
- 우크라이나 대외교역은 큰 타격을 입었으며, 사태 후 주 수출대상국은 유럽국가임
- '25년 공공투자 프로젝트를 국가 우선 사업으로 정하고 예산 약 62억 달러 배정

가. 시장 특징

□ 지리적 특성

- 러-우 사태 전
 - 우크라이나는 유럽에서 러시아 다음으로 두 번째로 큰 국가로, 크림반도 포함 면적은 603,800km²임
 - 동쪽으로는 러시아와 접하고, 서쪽으로는 폴란드·슬로바키아·헝가리·루마니아·몰도바·벨라루스 등 7개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으며, 남쪽으로는 흑해를 면하고 있어 발칸반도, 터키 및 지중해 연안국으로의 접근성이 높음
 - 우크라이나 전 국토의 44%, 경작이 가능한 농지의 절반 이상이 흑토로 구성
 - * 전 세계 흑토의 약 1/3이 우크라이나에 분포

〈2025년 8월 13일 기준 러시아 점령 지역〉

- 러-우 사태 후
 - 2025년 8월 13일 기준,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영토의 약 19%인 약 114,500km²를 점령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
 -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루한스크, 도네츠크주)의 약 46,570km², 즉 전체의 약 88%를 통제하고 있으며, 남동부 자포로지아와 헤르손 지역의 약 74%, 총 41,176km²를 점령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



자료: Reuters

□ 천연자원

- 러-우 사태 전
 - 우크라이나 경제부 발표에 따르면, 전 세계 광물자원의 5% 보유, 철광석/망간/우라늄/석탄/구리 등 매장량 풍부
 - EU가 지정한 핵심 전략 광물 34종 중 22종(마그네슘, 천연흑연, 티타늄, 붕소, 코발트, 백금족, 리튬 등)을 보유하고 있으며, EU와 2021년 원자재에 대한 전략적 파트너십 체결함
- 러-우 사태 후
 - 2024년 세계 광물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우크라이나 광물 생산량은 4,795만 9,688미터 톤임. 러-우 사태 전인 2021년 생산량 1억 770만 6,664미터에 비해 약 55.5% 감소함. 가치 기준으로 보면, 2022년은 107억 6,100만 달러로, 2021년 우크라이나 광물 생산량 201억 7,300만 달러 대비 46.7% 감소함
 - 생산량이 급감한 이유는 전쟁으로 주요 광산 지역이 점령되고, 생산이 크게 위축됐기 때문

우크라이나 핵심 광물 분포도

우크라이나 주요 광물 생산 현황(USGS)				우크라이나 핵심 광물 분포도
구분	단위	2021년	2024년	
철광석	mt	52(6위, 3.2%)	26(10위, 1.6%)	
마그네슘	kt	10(7위, 0.9%)	-	
고령토	mt	2(7위, 4.7%)	-	
티타늄				
- 일메나이트	kt	316(9위, 3.6%)	120(10위, 1.3%)	
- 루틸	kt	95(3위, 15.4%)	10(6위, 2.2%)	
망간	kt	600(6위, 3.0%)	-	
흑연	kt	10(8위, 0.9%)	1.2(15위, 0.08%)	
알루미늄	mt	1.8(10위, 1.3%)	-	

자료: 한국광해광업공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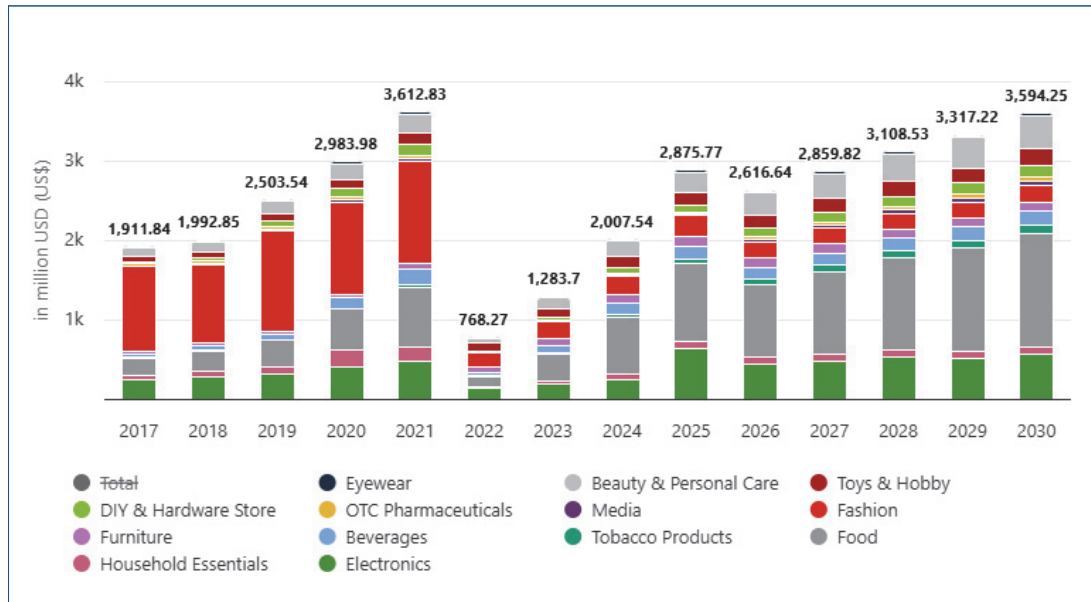
- 현재 우크라이나는 석탄 매장지의 63%, 석유 매장지의 11%, 가스 매장지의 20%, 금속 매장지의 42%, 희토류 및 리튬을 포함한 기타 중요한 광물 33%에 대한 접근이 어려운 상황임. 전문가에 따르면, 잠재적 광산 프로젝트 24개 중 7개가 러시아 점령지역에 있으며, 리튬, 흑연, 희토류 원소, 니켈, 망간 등이 포함돼 있음

- 세계 식량안보를 보장하는 국가 중 하나
 - 러-우 사태 전 우크라이나는 세계 5대 곡물 수출국 중 하나였으며 생산량의 3/4이 수출되었음. 국내 곡물 소비량은 20~25%에 불과, △세계 밀 수출의 10%, △옥수수 14% 이상, △해바라기유 47% 이상 생산함
 - '23년, △ 밀 1,610만 톤을 65개국에 수출, △ 옥수수 2,620만 톤을 80개국에 수출, △ 해바라기유 570만 톤을 130개국에 수출했음
 - '24년 10월 28일 우크라이나는 국제 농업 개발 기금(IFAD : International Fund for Agricultural Development)의 회원국이 되었으며, 농업 부문 전체의 발전에 기여할 새로운 기회를 얻게 됨
- * 경제평화연구소(IEP)는 '50년 전 세계 국가의 22%는 심각한 식량 부족 사태를 겪을 것으로 전망

□ 우크라이나의 구매력 및 소비 성향

- 필수재 중심 소비
 - 러-우 사태 장기화로 가계는 △ 식료품, △ 주거, △ 에너지 등 생필품 중심의 지출 비중이 증가하고 있음
 - 전반적으로 가계 구매력이 약화하면서 가격 대비 품질을 중시하는 경향이 강화됨. 대형마트의 자체 브랜드(Private Label) 제품 소비가 늘고, 외국산 고가 제품보다는 현지 생산 혹은 중저가 수입품 선호함
- 지속되는 프리미엄 소비 트렌드
 - 화장품, 건강보조식품, IT·전자기기 등 일부 분야에서는 '프리미엄 제품'에 대한 선호가 여전히 존재
 - 러-우 사태로 인해 해외나 휴가를 즐길 수 없는 여건 속에서 보상 심리나 '작은 사치(Affordable Luxury)' 개념의 소비는 일정 부분 지속되고 있음
- 온라인·디지털 소비 증가
 - 오프라인 유통망이 일부 붕괴하고, 수시로 발생하는 공급경보로 인해 오프라인 구매가 어려워지면서 온라인 구매 비중이 확대되고 있음
 - 모바일 결제,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한 소비가 증가하며,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디지털 소비 트렌드가 확산하고 있음
 - '24년 전자상거래는 전체 소매 매출의 10%를 차지, '24년 전자상거래 총지출액은 2,390억 흐리브냐(58억 달러)로 '23년 대비 25% 증가함
 - '25년 예상 매출액은 28.8억 달러임

〈우크라이나 연도별 전자상거래 상품군별 매출 규모〉



자료: Statista

□ 주요 인증

• 화장품 인증

- '24년 8월 3일, 우크라이나 내각 결의안 제65호에 따라 '21년 1월 20일 승인된 화장품 기술규제 (Technical Regulation)가 발효됨
 - '26년 8월 3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며, 그전까지 기술규제 없이도 수입 및 유통이 허용
 - 이 기술 취득은 EU 화장품 규정(EU Cosmetic Regulation) No.1223/2009를 기반으로 개발됨
- * 의약품 품목 기술 취득(Technical Regulation)은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

• TR 취득 관련 주의 사항

- TR 취득 시에는 수출업자가 수입·유통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때 독점 거래 여부를 사전에 결정하는 것이 중요함
- * 한국기업들이 자주 문의하는 사항 : 수입업체가 책임자가 되어 TR을 취득하면 복수 판매 가능 여부임. 이 경우 복수 판매는 가능하나, 수입업체로부터 위임장(허락)을 받아야 해 이는 사실상 독점 판매권을 인정해 주는 것과 같음
- 제조사가 여러 디스트리뷰터와 거래를 원할 경우, 판매와 무관한 인증 대행 기관을 수출업자의 대리인으로 등록해 TR을 취득하는 방식을 활용함

□ 해당 시장의 전략적 가치

- 농업 및 식량안보의 전략적 가치
 - 비옥한 토지를 바탕으로 세계적인 곡물 생산·수출국으로 밀, 옥수수, 해바라기유 등은 글로벌 식량 시장 안정성에 핵심적 역할
 - 전후 재건 시 농업 현대화, 가공산업 발전 등 투자 기회 확대가 예상됨
- EU 진출의 교두보로서 우크라이나
 - 폴란드, 슬로바키아, 헝가리, 루마니아 등 EU 회원국과 인접해 있어, 물류·유통망의 전진기지로 활용할 수 있음
 - EU 단일 시장 접근 가능성이 커지면서 우크라이나는 전후 복구 + EU 공급망 편입이라는 이중의 매력을 갖게 됨

나. 무역

□ 수출입 동향

- (수출 규모) '24년 우크라이나 수출 규모 404억 1,000만 달러로, '23년 대비 12.1% 증가
 - 러-우 사태 여파로 차단되었던 교통·항만 인프라가 점진적으로 복구되면서, 수출품의 수송 경로가 회복되어 수출이 늘어남
- (수입 규모) '24년 우크라이나 수입 규모 705억 달러로, '23년 대비 11.0% 증가
 - 국내 생산이 제약된 품목을 대체하기 위해 외국 제품 수입 비중 증가

우크라이나 역외 수출입 규모 동향

(단위: 십억 달러, %)

	2023년		2024년		2025년 8월 누계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역외수출	36.1	-18.9	40.4	12.1	26.4	0.6
역외수입	63.5	15.0	70.5	11.0	52.5	16.8
무역수지	-27.5	154.8	-30.1	9.5	-26.1	39.6
총 교역	99.5	-0.1	110.9	11.4	79.0	10.8

자료: GTA(9월)

□ 주요 수출국 및 수출 품목

- 주요 수출국
 - '24년 기준, 수출 대상국 1위는 폴란드(44.0억 달러, -6.8%), 2위는 스페인(28.7억 달러, 43.4%), 3위는 독일(25.4억 달러, 26.3%)로 나타났다
- 주요 수출 품목
 - '24년 기준, 수출 상위 품목은 1위 해바라기씨유·잇꽃유와 그 분획물, 2위 옥수수, 3위 곡물, 4위 철광과 그 정광, 5위 유채씨 순임

□ 주요 수입국 및 수입 품목

- 주요 수입국
 - '24년 기준, 수입 대상국 1위는 중국(143.1억 달러, 37.2%), 2위는 폴란드(69.7억 달러, 6.0%), 3위는 독일(53.8억 달러, 6.3%)로 나타났다
- 주요 수입 품목
 - '24년 기준, 기준, 수입 상위 품목은 1위 석유, 2위 승용차, 3위 의약품, 4위 무인기, 5위 휴대폰 순임

주재 지역 수입시장 분석

(단위: 십억 달러, %)

2024년				2025년 8월 누계			
순위	품목명	수입액	점유율	순위	품목명	수입액	증감률
1	석유	6.8	9.7	1	석유	3.9	7.4
2	승용차	4.4	6.2	2	자동차	3.7	7.0
3	의약품	2.0	2.8	3	천연가스	1.5	2.9
4	무인기	1.3	1.8	4	의약품	1.3	2.5
5	휴대폰	1.3	1.8	5	무인기	1.2	2.2
6	화물자동차	1.0	1.4	6	전력설비	1.0	1.9
7	배터리	1.0	1.4	7	휴대폰	1.0	1.8
8	살충제	0.9	1.2	8	살충제	0.8	1.4
9	트랙터	0.8	1.1	9	배터리	0.7	1.4
10	컴퓨터	0.8	1.1	10	송신기기	0.6	1.4

자료: GTA(9월)

- (석유) 우크라이나는 사실상 비산유국으로, 정유시설 또한 열악해 주로 정유를 수입하고 있음
- (천연가스) '13년 유로마이단 이후 러시아로부터의 가스 수입을 중단했으며, 일부 자국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25년 러시아의 가스 인프라 집중 공격으로 공급이 부족한 상황임
- (승용차, 화물자동차) 인도주의적 목적 및 상업용으로 수입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최근에는 픽업트럭·승합차 등 일반차량을 군사적 용도로 전환하기 위한 수입도 증가하고 있음
- (의약품) 전투 부상자용 응급 의약품뿐만 아니라, 암·결핵·HIV 등 중증 질환 치료용 전문의약품 수입도 증가하고 있음. 러-우 사태 이후에는 주로 국제기구 및 민간단체의 원조를 통해 의약품을 확보하고 있는 실정임
- (무인기) '23년부터 수입을 시작해 '24년 수입 규모가 전년 대비 82.6% 증가함. 러-우 사태 이후 우크라이나 방산 산업이 급속도로 성장하면서 무인기 관련 품목 수입도 확대되고 있음
- (휴대폰) 민간인의 구매 수요 외에도 군사 통신용 대량 구매가 수입 증가 요인으로 작용함. 최전방에서는 상호 교신을 위해 휴대폰이 실질적 통신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음
- (전력설비, 배터리) 러시아의 에너지 시설 공격으로 발전소와 송배전망에 상당한 타격을 입으면서, 관련 설비 수입이 증가함
- (살충제, 트랙터) 러-우 사태에도 불구하고 비전투 지역에서는 영농 활동이 지속되고 있으며, 농산물 수출이 주요 재원으로 유지되는 만큼 관련 품목 수입 수요도 꾸준히 존재함

□ 對韓 교역 동향

- (교역) 최근 5개년 비교, 교역량 및 상위 10대 품목의 큰 변화는 없음
 - 러-우 사태 직후 무역수지 적자 최대 기록, 무역수지 개선은 수출 증가보다는 수입 감소에 더 많은 영향을 받음
 - 사태 후 현지 자동차 수요 감소세, 중저가 소비재 선호 경향
- 교역 규모
 - (수출) '24년 한국의 對우크라이나 수출 규모는 3억 7,400만 달러로, '23년 대비 0.1% 감소
 - (수입) '24년 한국의 對우크라이나 수입 규모는 4억 9,200만 달러로, '23년 대비 24.2% 감소
 - (무역수지) '24년 한국의 對우크라이나 무역수지는 -1억 1,800만 달러임
- 주요 교역 품목
 - (수출) '24년 기준 순위별 수출 품목은 1위 화장품(6,432만 달러로 전년 대비 2.1% 감소), 2위 승용차(6,328만 달러로 전년 대비 60.5% 증가), 3위 화물자동차(5,349만 달러로 전년 대비 37.2% 감소), 4위 의료용 기기(2,226만 달러로 전년 대비 16.6% 증가), 5위 아연도 강판(1,852만 달러로 전년 대비 46.8% 증가)

한국의 對우크라이나 10대 수출 품목 동향

(단위: 백만 달러, %)

2024년				2025년 7월 누계			
순위	품목명	수출액	증감률	순위	품목명	수출액	증감률
	총 수출	374.2	-0.1		총 수출	318.6	45.5
1	화장품	64.3	-2.1	1	화물자동차	59.1	85.5
2	승용차	63.3	60.5	2	승용차	50.8	73.3
3	화물자동차	53.5	-37.2	3	화장품	46.6	22.6
4	의료용기기	22.3	16.6	4	아연도강판	28.7	93.3
5	아연도강판	18.5	46.8	5	건설중장비	20.8	192.7
6	타이어	16.8	-11.7	6	의료용기기	15.9	-1.2
7	의료용전자기기	8.2	79.4	7	타이어	10.6	-9.5
8	자동차부품	13.2	-0.8	8	컴포넌트	9.9	64.1
9	의약품	11.7	-2.0	9	자동차부품	8.1	1.5
10	건설중장비	11.0	42.5	10	발전기	6.7	0.0

자료: 한국무역협회('25년 9월)

- (수입) '24년 기준 순위별 수입 품목은 1위 사료(2억 2,590만 달러, 전년 대비 9.5% 감소), 2위 곡류(1억 9,960만 달러, 전년 대비 36.8% 감소), 3위 기타 난방 및 전열기기(1,910만 달러, 전년 대비 52.2% 증가), 4위 소프트웨어(1,160만 달러, 전년 대비 16.9% 증가), 5위 식물성 유지(1,150만 달러, 전년 대비 23.6% 증가)

한국의 對우크라이나 10대 수입 품목 동향

(단위: 백만 달러, %)

2024년				2025년 7월 누계			
순위	품목명	수입액	증감률	순위	품목명	수입액	증감률
	총 수입	492.4	-24.2		총 수입	188.3	-47.8
1	사료	225.9	-9.5	1	곡류	139.0	27.2
2	곡류	199.6	-36.8	2	철광	21.5	0.0
3	기타난방 및 전열기기	19.1	52.2	3	기타난방 및 전열기기	11.2	33.9
4	소프트웨어	11.6	16.9	4	식물성유지	4.3	-43.5
5	식물성유지	11.5	23.6	5	원동기	2.3	-47.5
6	원동기	6.8	106.4	6	직물제의류	1.4	-8.7
7	직물제의류	3.4	-33.5	7	의약품	587.0	400.3
8	철강관	1.2	85.9	8	제재목	546.0	11.4
9	제재목	1.1	-44.3	9	소프트웨어	513.3	-92.9
10	펌프	0.9	27.9	10	사료	493.8	-99.8

자료: 한국무역협회('25년 9월)

• 한국의 우크라이나 내 수출시장 점유율

- 우크라이나에서는 한국 자동차 및 부품, 의료기기, 소비재(화장품·전자제품·식품) 등이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 (식품) K-Pop과 K-Drama의 확산으로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한국 문화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기존 우크라이나 및 유럽 전통 요리와는 다른 새로운 맛에 관심이 생기며 자연스럽게 K-Food 수요로 이어짐. 올해 한국산 식품 판매량은 전년 대비 2~3배 증가
 - (화장품) 천연 성분 사용, 경쟁력 있는 가격, 혁신적인 품질, 다양한 종류의 제품, 매력적인 포장 디자인 등의 이유로 한국 제품이 인기를 끌고 있음
- * '25 상반기 기준 기초화장품 수입국 한국 1위(2,125만 달러, 점유율 17.1%)
- (스마트폰) 러-우 사태로 인한 스트레스, 해외이동 제한 등으로 인해 소비자들을 보상심리로 소비를 늘리는 경향이 있음

□ 우크라이나 주요 수출 성공사례



성공 사례로 보는 우크라이나 진출 전략 : 한국 기업 T사

- 제품의 비교우위
 - 천연 성분을 활용한 제조
 - ECO 및 Vegan 인증을 보유한 화장품
 - NS를 통한 적극적인 브랜드 홍보 및 인플루언서·블로거 협업
- 필수 인증 : CPNP, SCPN 인증(우크라이나 내 간소화된 제품 등록 및 향후 EU 시장 진출을 위한 기반)
- 성약 소요기간 : '24년 11월 ~ '25년 3월(총 5개월)
- 바이어 발굴경로
 - 화장품 박람회 참가 기업
 - KOTRA 주최 행사 참가 기업
- 무역관 담당자가 말하는 시사점
 - 제품이 천연 성분을 활용한 화장품 및 'Eco', 'Vegan' 콘셉트가 트렌드에 부합했음
 - 한국 기업과의 협력 경험이 있는 화장품 수입업체 및 한국 화장품 프로모션 경험이 있는 기업을 중심으로 협력 대상을 선정하여, 보다 관심도 높은 파트너를 신속하게 확보할 수 있었음
 - 한국 기업이 이미 EU 인증을 보유하고 있어 우크라이나 내 인증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었으며, 이를 통해 수입업체가 향후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폴란드, 루마니아, 몰도바 시장 진출 전략을 구체화할 수 있었음

**성공 사례로 보는 우크라이나 진출 전략 : 기업 K사**

- 제품의 비교우위
 - 자동차 부품의 폭넓은 제품 라인 보유
- 필수 인증 :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인증은 별도로 없음
- 성약 소요 기간 : 최초 주문 논의 및 조정에 약 1개월 소요
- 바이어 발굴경로 : 자동차 부품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업체를 등록자료 및 공개 정보를 통해 탐색함
- 무역관 담당자가 말하는 시사점
 - 우크라이나에서는 저가형 자동차 부품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존재함
 - 고가 수리 부품은 수리 지연이 발생할 수 있지만, 소모품과 필수 부품은 항상 수요가 높음
 - 한국산 자동차 부품은 신차·중고차 모두에서 중요한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미국산 파손 차량용 부품에 대한 수요가 많음

**성공 사례로 보는 우크라이나 진출 전략 : 기업 A사**

- 제품의 비교우위
 - 간편하고 빠르게 라면 조리 가능
- 필수 인증 :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인증은 별도로 없음
- 성약 소요 기간 : 약 1년
- 바이어 발굴경로 : 바이어가 독일 쾰른 전시회를 통해 한국 기업에 접촉
- 무역관 담당자가 말하는 시사점
 - 우크라이나 최초로 '라면 도서관' 프로젝트를 시작, 수도 키이우에서 큰 인기를 얻음
 - 현재 우크라이나 주요 도시 3곳에서 추가 매장 오픈 진행 중

□ 주요 경쟁국 동향

- 저가 선호로 중국산 제품 수입 증가
 - 우크라이나 소비자들은 경제적 여건과 가격 민감도 때문에 저렴한 제품을 선호하는 경향이 강함
 - * 특히, 러-우 사태 이후 경제적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저렴한 제품으로 수요가 집중되고 있음
 - 중국산 제품은 가격 경쟁력이 뛰어나고 다양한 유통 채널을 통해 공급되기 때문에 현지 소비자들이 접근하기 쉬움. 이러한 소비자 성향은 중국산 제품의 우크라이나 시장 점유율 확대에 이어지고 있으며, 현지 소매업체와 온라인몰에서도 중국 제품 비중이 높아지는 추세임

우크라이나 수입시장 내 한국 및 경쟁국의 시장점유율 추이

(단위: %)

국가명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7월 누계
중국	15.9	16.4	20.3	21.5
폴란드	9.9	10.4	9.9	9.5
한국	1.0	1.0	1.1	1.1
독일	8.3	8.0	7.6	8.1

자료: GTA('25년 9월)

□ 주재국의 대외 수입 규제

- 러시아산 제품 전면 금지
 - '22년 4월 9일부터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산 제품 수입을 전면 금지하고 있음
- '25년 10월 21일 기준, 對韓 수입 규제는 없음
 - 다만, 러시아와의 분쟁으로 러시아산 제품뿐 아니라 수출기업이 러시아와 관련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최종 실소유주 정보를 은행에서 요구하는 경우가 있음

다. 산업

□ 주요 산업 개요

- 우크라이나는 전통적으로 1차 산업이 발달했으나, 서비스 산업의 GDP 비중이 점차 높아지고 있음
 - ('21년 기준 산업별 GDP 비중) 도소매업이 전체 GDP의 13.6%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농림어업(10.9%), 제조업(10.3%)이 그 뒤를 이음
 - ('23년 기준 산업별 GDP 비중) 공공 국방 부문이 전체 GDP의 25.3%로 가장 높은 비중을 기록했으며, 그다음으로 도소매업(13.6%), 제조업(9.4%)이 뒤를 이음

'21-'23년 우크라이나 산업별 GDP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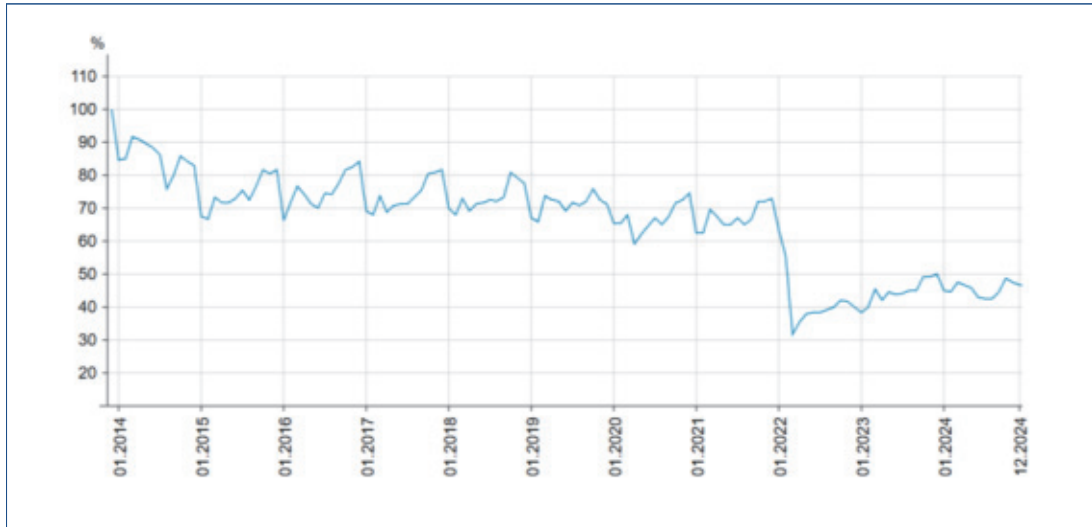
(단위: %)

부문	2021년	2023년
공공 국방	6.2	25.3
도소매업	13.6	14.4
제조업	10.3	9.4
농림어업	10.9	8.5
부동산업	5.8	5.6
전기, 가스, 수도사업	3.3	5.4
운송 및 창고업	5.4	5.0
광업 및 채석업	6.4	4.6
정보 및 통신업	4.7	4.5
교육	4.3	4.0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2.5	3.0
금융 및 보험업	3.0	2.7
전문, 과학 및 기술 활동	2.9	2.3
건설업	2.8	1.8
기타 서비스업	4.1	3.5

자료: 통계청

- 러-우 사태로 산업 회복 난항
 - 러-우 사태 발발 이후 '22년 우크라이나의 산업 생산은 전년 대비 36.7% 감소했음
 - 이후 점진적인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사태 장기화로 경제 전반의 회복이 여전히 쉽지 않은 상황임
 - 정치적 불안, 전문 인력 부족, 전력 공급 문제, 높은 물가 상승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산업 회복에 주요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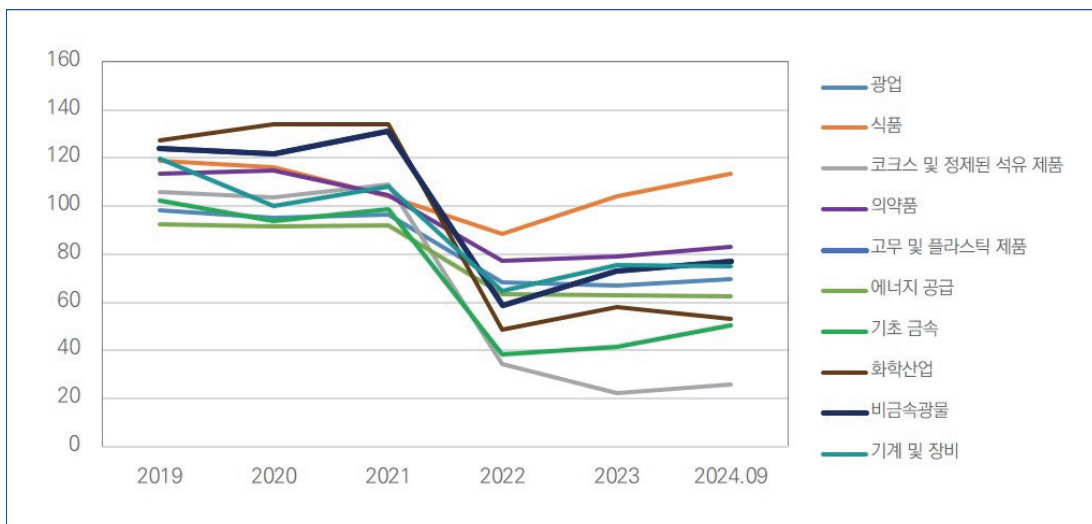
〈우크라이나 산업 생산 변화〉



자료: 통계청

- 전통적으로 우크라이나 주요 산업은 철강업, 광업, 농업임
 - 철강업, 광업, 농업은 우크라이나 산업의 중심이며 수출과 수입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해 왔음
 - 그러나 러-우 사태는 경제 구조에 큰 변화를 발생시켰으며, 광업과 철강·화학 산업은 심각한 타격을 입었고, 건설 산업 또한 큰 피해를 봄
 - 반면, 식품 산업(농업 포함)만 러-우 사태 이전 수준까지 회복하며 성장세를 보이고 있음

〈우크라이나 주요 산업 추이〉



자료: 유엔공업개발기구(UNIDO)

라. 투자

□ 외국인 투자 동향

- '23년 외국인직접투자(FDI) 42억 4,700만 달러
 - 러-우 사태 전에 외국인직접투자(FDI)를 살펴보면, '19년까지 증가했다가 '20년 코로나로 인해 감소했음
 - 러-우 사태 전에 외국인직접투자(FDI)를 살펴보면, '19년까지 증가했다가 '20년 코로나로 인해 감소했음
 - 러-우 사태로 인해 '21년 투자 금액이 73억 2,000만 달러에서 '22년 5억 3,100만 달러로 급격히 감소함. '23년 투자 금액은 44억 8,500만 달러, '24년 투자 금액은 전년 대비 25.8% 감소한 33억 2,900만 달러

對우크라이나 외국인직접투자 규모

(단위: 백만 달러)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6,017	-36	7,320	531	4,485	3,329

자료: 유엔공업개발기구(UNIDO)

□ 현지 주요 투자 유치 산업

- 우크라이나 정부, 현지 투자에 유망한 산업 발표
 - 우크라이나 정부가 발표한 투자에 가장 유망한 산업은 방위산업과 밀리터리 테크(Military-Tech)임
 - 그 외 에너지·건설·가공산업·광물자원 채굴 및 가공 분야도 투자 유망분야로 제시함
 - 정부는 사업 환경 개선과 투자 촉진을 위해 개혁과 정책 변화를 지속적으로 시행 중임
- 재건 중심 투자도 활발히 진행 중
 - 미국, EU 국가 주요국은 군사 지원뿐 아니라 인도적 지원과 유무상 재정 지원을 통해 재건 사업을 병행함

주요국의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추진 현황

국가	세부 내용
미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 지원금 847억 유로(총 41개 지원국 중 1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사 원조 : 568억 유로, 인도적 지원 : 29억 유로, 유·무상 재정 지원 : 250억 유로 • ('22년 7월) 우크라이나 재건협약체 발족 • ('23년 4월) 미-우 파트너십 포럼 • ('24년 4월) 미-우 파트너십 포럼

국가	세부 내용
독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 지원금 151억 유로(총 41개 지원국 중 2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사 원조 : 106억 유로, 인도적 지원 : 30억 유로, 유·무상 재정 지원 : 15억 유로 • 유럽의 對우크라이나 정책 주도 • ('22년 10월) 우크라이나 재건회의 개최 • ('23년 3월)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종합 정보포털 신설 • ('24년 10월) 우크라이나 재건회의 개최
폴란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 지원금 45억 유로(총 41개 지원국 중 10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사 원조 : 32억 유로, 인도적 지원 : 4억 유로, 유·무상 재정 지원 : 9억 유로 • 사태 초기부터 우크라이나 난민 수용(누적 200만 명 이상) • ('22년 10월) 재건 관련 보고서 발간 • ('23년 2월, 11월) 재건 박람회 개최 • ('24년 6월, 11월) 재건 박람회 개최

자료: KOTRA 키이우무역관

• 방위 산업 관련 투자 현황

- 현재 대부분의 해외 투자는 방위 산업에 이루어지고 있음. 특히 EU 국가의 참여가 두드러짐

국가	세부 내용
EU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5년 7월 11일, EU-우크라이나 방위 산업 협력 태스크포스가 새롭게 출범함 EU는 우크라이나 방위 산업에 10억 유로를 투자할 예정임 • 투자금은 우크라이나의 최첨단 방위 산업, 드론과 미사일 생산에 사용될 예정임
독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위 산업, 특히 드론 생산 분야에서 우크라이나와 합작투자를 계속할 예정임 • 독일 Rheinmetall사는 처음으로 탄약생산 공장 건설에 투자한 기업임
프랑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5년 7월 3일, 우크라이나 방위산업위원회(The Ukrainian Council of Defence Industry)는 프랑스 지상방위산업협회(GICAT)와 방위 산업 협력 강화를 위해 협력 각서에 서명함 • 구체적으로 공동 R&D 프로젝트 진행, 국제 시장 진출, 공동 생산에 대한 규제 장벽과 조건에 대해 논의 예정임
캐나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드론 공동 생산을 위해 2억 달러 투자 예정임 • 캐나다는 NATO의 우크라이나 우선 요구사항 목록(PURL : Prioritised Ukraine Requirements List) 이니셔티브에 참여하는 최초의 비유럽 국가임

자료: KOTRA 키이우무역관

□ 주요 경쟁국의 현지 투자 유입 동향

- 우크라이나에 대한 최대 투자국은 EU임
 - 우크라이나 FDI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국가는 EU로 전체의 약 77% 차지
 - '24년 기준, EU 회원국 중에서 네덜란드가 전체의 52.4%로 가장 중요한 투자국이며, 키프로스가 전체의 38.0%로 두 번째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키프로스는 '20년 이후 우크라이나 FDI에서 가장 중요한 국가 중 하나임. 이는 키프로스의 직접투자라기보다는 우크라이나에서 이동한 자금이 다시 우크라이나로 재투자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됨

우크라이나 주요 투자국

(단위: 백만 달러)

국가명	2024년	2025년 1분기
EU	2723.1	441.7
네덜란드	1427.3	131.6
키프로스	1035.5	139.6
스위스	401.9	70.0
미국	371.4	188.7

자료: 우크라이나 중앙은행

□ 한국의 해당 주재국 투자 진출

- 한국 기업 투자 현황
 - '24년 신고 건수는 10건, 신규법인수는 2개, 신고 금액은 212만 6,000달러, 송금 횟수는 15건, 투자 금액은 140만 4,000달러

한국의 對우크라이나 투자 진출 동향

(단위: 백만 달러, % 개사)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분기 누계	
	금액, 건	증감률	금액, 건	증감률	금액, 건	증감률	금액, 건	증감률
투자금액	0	-100	9	-	1	-88.9	0	-100
신규 법인 설립 건수	0	-100	1	-	2	100	0	-100

주: 신규 법인 설립 건수는 현지법인·지점·지사 모두 포함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 현지 투자 진출 시 진입장벽

- (인사·노무)
 - 우크라이나는 러-우 사태로 인해 노동시장 불안정이 심화됨
 - 징집·해외 피난·국내 피난민 이동으로 인해 숙련 노동력 확보가 쉽지 않고, 특히 남성 노동자(25~60세)는 징집 가능성이 있어 장기 고용에 불확실성이 큼
- (특정 산업 투자 금지 등 규제)
 - 농지의 경우 '21년부터 단계적으로 매매가 허용되었으나, 외국인의 직접 소유는 금지되어 있어 농업 투자 진출 시 합작법인(JV) 또는 임대 방식만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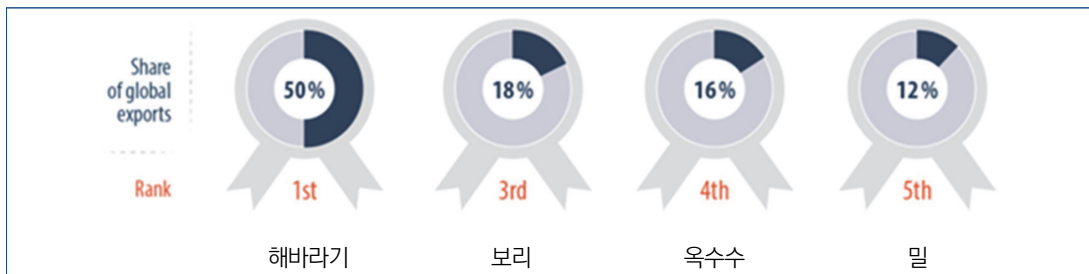
2. 유망 산업

가. 농업

□ 개요

- 현지 산업 규모
 - 러-우 사태 전 농업은 우크라이나 GDP의 10.9% 차지
 - 우크라이나는 ‘유럽의 곡창지대(Breadbasket of Europe)’로 불리며, 농업 발전에 매우 유리한 조건을 갖춘 국가임. 전체 면적의 약 2/3가 비옥한 토양으로 이루어져 있음
 - 러-우 사태 전 우크라이나의 농업용 토지 면적은 4,130만 헥타르로 이는 전체 국토의 68.5%에 해당하며, 이 중 경작 가능한 토지는 3,270만 헥타르임
- 최근 수출입 동향
 - 우크라이나 농업 생산의 중심 품목은 밀, 옥수수, 해바라기이며, 주로 수출용으로 재배됨. '21년까지 농업 부문은 국가 전체 수출의 41%를 차지함

〈러-우 사태 전 우크라이나 주요 농산물 수출 점유율 및 순위〉



자료: 유럽의회(EP)

□ 최근 산업 동향

- 러-우 사태 이후 전체 농경지의 20.5% 상실
 - 우크라이나 농경지는 러시아의 지뢰와 탄약으로 뒤덮여 있어 농업용으로 사용하기 어려운 상황임. 농산물 총 생산량도 크게 감소했음. 수확량이 많았던 해인 '21년에는 농산물과 특용작물(Industrial Crop)의 수확량이 총 1억 600만 톤에 달했으나, '24년 수확량은 7,700만 톤에 그쳤음
 - '25년 상반기 우크라이나의 농산물 수출액은 113억 5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124억 5,100만 달러 대비 9% 감소한 수치임

〈러-우 사태로 오염/위험 가능성이 있는 지역〉



주: 주황색 표시된 지역은 위험지역으로 확정된 지역, 노란색 표시된 지역은 위험지역 가능성이 있는 지역
 자료: USDA

우크라이나 농업 산업 주요 기업 동향

기업명	기업 최신 동향
MH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 식품가공 및 유통을 아우르는 글로벌 농식품 기업 - 곡물 축산물·가공식품 등을 포함한 종합 포트폴리오 보유 - 우크라이나 톱10 농업 회사 중 HMP그룹의 자회사 6개가 포함돼 있으며, 톱10 회사 총 수입의 71%를 차지
Kernel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크라이나 최대 곡물 수출 기업 중 하나 - 전 세계 해바라기유 수출의 10%를 차지 - 생산하는 제품의 90% 이상을 해외로 수출하며, 글로벌 오일 및 곡물 시장에서 선도적 위치 확보
LNZ Gro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자 생산, 농업, 식품 가공 및 유통을 아우르는 통합형 농식품 기업 - 옥수수·해바라기 등 주요 작물 재배, 종자 및 농업용 보호제 유통, 냉동 과일 가공 사업 등을 운영 - 전국 유통망(LNZ-MARKET)과 자체 물류·저장 인프라를 보유한 우크라이나 대표 종자기업 중 하나

자료: 각 기업 홈페이지

□ 전망 및 기회 요인

- 스마트팜 분야, 농기계 및 설비 분야 수요 확대 전망
 - 농업은 우크라이나의 핵심 산업으로, 전후 경제 회복의 주요 과제 중 하나임
 - 정부는 향후 농업 부문을 복구 및 발전의 핵심 분야로 중점 추진할 전망이며, 이에 따라 스마트팜 기술, 농기계 현대화, 가공 및 저장 설비 등 관련 분야의 수요가 점진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 농경지 복원을 위한 지뢰 제거 장비 수요 지속

- 우크라이나 영토의 약 1/4(약 1,390만 헥타르)이 러-우 사태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정됨. 이 중 10개 지역의 985만 헥타르 농경지는 여전히 사용이 불가능한 상태로 남아 있음
- 현재 지뢰 제거 작업은 인력 및 장비 부족 등으로 속도가 매우 더딘 상황이며, 현 추세가 유지될 경우 우크라이나 농경지를 완전히 정화하는 데 약 83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 이에 따라 지뢰 탐지·제거 장비 및 관련 기술에 대한 수요가 장기적으로 지속될 전망이다

나. 소비재 산업

□ 개요

- 현지 산업 규모

- 우크라이나 경제 전반에 큰 타격을 주었으나, 소비재 시장은 초기 위축 국면을 지나 점진적으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음. 러-우 사태가 장기화되더라도 식품, 생활용품, 가전 등 필수재와 편의재에 대한 수요는 지속될 전망이다
- '24년 우크라이나 도매·소매 유통업 매출액은 434억 달러로, 전년 대비 15.6% 증가함

- (식품) 식품 시장, 러-우 사태 전 수준까지 회복하며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음

- 소비자들은 불확실한 미래에 대비하여 필수 식품 중심으로 소비를 집중하는 경향이 강함
- 동시에 외부 활동 제한으로 재택 시간이 증가해 '홈코노미' 관련 식품 소비가 확대되는 새로운 소비 트렌드가 형성됨
- (화장품) '24년 화장품 시장 규모는 약 150~200억 달러로 추정됨
- 유로모니터에 따르면, 스킨케어 시장 규모가 132억 달러, '23년 대비 16% 증가함
- 우크라이나 화장품 시장의 90% 이상이 수입 제품으로 구성되어 있음

- 최근 수출입 동향

- (식품) '24년 식품 수입 규모는 230억 달러, 수출 규모는 66억 달러로 집계됨
- 우크라이나 식품 수출의 40% 이상이 곡물로 구성되어 있으며, 원자재 중심의 수출 구조가 지속되고 있음

우크라이나 식품 수출입 동향

(단위: 십억 달러, %)

	2023년		2024년		2025년 8월 누계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수출	20.4	-8.4	23.0	12.9	13.6	-9.5
수입	6.0	15.7	6.6	10.9	4.8	15.6

주: HS 코드 '02~'22년 기준
자료: GTA('25년 9월)

- (화장품) '24년 화장품(HS코드 3304) 수입 규모는 297.6백만 달러로 집계됨
- 이 중 스킨케어 제품이 전체 수입의 75.5%를 차지하며, 수입 규모는 2억 2,460만 달러임. 그 뒤로는 화장품 제품류 2,750만 달러, 입술 화장용 제품류 2,470만 달러, 매니큐어 제품류 1,190만 달러임

우크라이나 화장품 수출입 동향

(단위: 백만 달러, %)

	2023년		2024년		2025년 8월 누계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수출	19.8	-21.9	23.7	19.9	18.6	24.6
수입	284.8	85.3	297.6	4.5	186.8	-0.8

자료: GTA(9월)

우크라이나 소비재 산업 주요 기업 동향

기업명	기업 최신 동향
ATB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크라이나 최대 식료품 유통체인 - 전국 24개 지역에 1,200개 이상 매장을 운영하며, 러-우 사태 중에도 매장 복구와 신규 출점 병행 중임 - '24년 기준 연매출은 약 61억 달러임
Fozzy Gro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크라이나 대형 유통·산업 그룹 - 전국 700개 이상 점포망을 보유하고 있으며, 프리미엄 슈퍼마켓부터 편의점·온라인몰 등 다양한 유통 포맷을 운영 중임 - 자체 수입 및 유통망을 갖추고 있으며, 식품 가공·생산, 금융업, 외식업 등으로 사업을 확장함
Rozetk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크라이나 최대 전자상거래 플랫폼 - 전자제품, 생활용품, 뷰티, 식품 등 다양한 카테고리를 취급하는 통합 리테일 플랫폼으로, 온라인 마켓플레이스와 오프라인 픽업 매장을 함께 운영함 - '24년 기준 연매출이 약 20억 달러임

자료: 각 기업 홈페이지

□ 향후 전망, 기회요인

- (식품) 최근 우크라이나 내 한국 식품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 한국산 인스턴트 라면, 김, 통조림, 음료, 과자 등이 이미 소규모 상점과 온라인몰, 대형 슈퍼마켓 등 다양한 유통 채널을 통해 판매되고 있음
 - * 한국산 식품 판매량은 전년 대비 2~3배 증가
 - 식품 완제품뿐 아니라, 농식품 가공 기술, 생산 설비 라인 수출 및 합작투자 분야에서도 협력 가능성 있음
- (화장품) 한국 화장품에 대한 우크라이나 내 수요가 지속적으로 높음
 - '24년 기준 한국은 우크라이나의 화장품 수입국 중 4위로, 수입 규모는 3,550만 달러로, 전년 대비 11.9% 증가함

- 한국산 제품의 품질과 신뢰도를 높이 평가하고 있으나, 매스마켓 부문은 이미 포화상태로 제품 차별화 및 경쟁력 확보가 필수적임

다. 방위 산업

□ 개요

• 현지 산업 규모

- 방위 산업은 러-우 사태 이후 우크라이나가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산업임. 우크라이나 국방부 발표에 따르면, 국가 예산의 거의 절반을 방위 분야에 할당하고 있으며, 3년 만에 우크라이나의 방위 역량이 35배 성장함











* '23년 예산의 43.2%, '24년 예산의 54.2%, '25년 예산의 66.0%를 방위 분야에 책정

- 군사 장비 및 무기 생산 규모가 확대되면서, 국내 방위 수요의 약 40%를 자국 내 생산으로 충족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함
- 방위 산업의 급성장 원인은 정부의 지원과 해외 기업의 투자에 있음. 정부는 우크라이나의 방산 기술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Brave1 클러스터 플랫폼(brave1.gov.ua)을 출시해 교육적·정보적·재정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음. 해외기업 중 독일 Rheinmetall사, 독일 Flensburger Fahrzeugbau Gesellschaft사, 프랑스 Thales사, 미국 Northrop Grumma사, 튀르키예 방산기업 Baykar사, 체코 Czechoslovak Group(CSG) 등이 우크라이나와 협력 중임

• 최근 수출입 동향

- 드론(HS코드 8806)의 경우 '23년부터 수출입을 시작함. '24년 기준 우크라이나 드론 수출 규모는 199.6만 달러, 수입 규모는 12억 8,645만 달러임
- 무기류(HS코드 93)도 '23년부터 수출입을 시작함. '24년 기준 우크라이나 무기류 수출 규모는 183만 3,000달러, 수입 규모는 4,972만 8,000달러임
- '20~'24년 기간 우크라이나는 세계 최대 무기 수입국으로, 수입 규모가 거의 100배 증가함

〈'22~'24 세계 무기 주요 수입국〉

	Ukraine	8.8%
	India	8.3%
	Qatar	6.8%
	Saudi Arabia	6.8%
	Pakistan	4.6%
	Japan	3.9%
	Australia	3.5%
	Egypt	3.1%
	United States	3.1%
	Kuwait	2.9%

자료: Ukrinform

□ 현지 주요 기업 및 최근 동향

- 현재 우크라이나에서는 약 900개 기업과 1,000개 이상의 혁신팀이 활동 중임
 - 무엇보다 무인 시스템 제조기업은 500개 이상이며, 그중 부품의 80%를 국산 부품을 사용하는 기업도 있음. 군용 드론의 거의 100%가 우크라이나 민간기업을 통해 개발/생산되고 있음
 - 방위 산업에 종사하는 인력 수는 러-우 사태 전 7만 명에서 30만 명 이상으로 증가함
 - 방산기업 Ukrainian Defense Industry는 미국 국방 전문 매체인 디펜스뉴스가 발표한 '25년 세계 100대 방산기업에서 49위를 차지함

세계 100대 방산기업 내 Ukrainian Defense Industry 순위

(단위: 백만 달러)

연도	매출액	순위
2021	754.6	97
2022	1,284.7	89
2023	2,206.9	65
2024	3,007.0	49
2025	-	49

자료: 디펜스뉴스(Defensenews)

우크라이나 방위 산업 주요 기업 동향

기업명	기업 최신 동향
Ukrainian Defense Industry JSC (Ukroboronprom)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크라이나 국영 무기 및 군사 장비 생산 업체 - '24년 생산량은 '23년 대비 3배 증가했으며, 계약 체결 규모는 36% 증가함 - '24년 우크라이나 방위산업체 매출액은 약 30억 달러임

자료: 기업 홈페이지

□ 향후 전망, 기회요인

- '26년에도 국방 분야 중점 지원 지속
 - 우크라이나 정부는 '26년 국가 예산 중 국방 분야 예산을 683억 달러로 책정, 이는 GDP의 27.2% 해당함
 - 정부는 자체 국방력 강화를 위해 장비 생산·개발 역량 확충, 국내 제조 기반 육성에 힘쓰고 있음
 - 이에 따라 한국 방산 기업의 부품공급 및 기술교류 등 협력 기회가 확대될 가능성 높음

3. 협력 기회

가. 프로젝트

- 우크라이나는 '25년 공공투자 프로젝트를 국가 우선 사업으로 정함
 - '25년 공공투자 프로젝트 자금 조달을 위해 국가 예산 약 62억 달러를 배정함
 - * 62억 달러 중 45억 5,854만 달러는 해외원조를 통해서 자금을 지원할 것으로 예상
 - 총 2조 3,600억 흐리브냐(575억 6,098만 달러) 상당의 750개 프로젝트가 있음
- 해외기업들의 방산 산업 관련 프로젝트 참여 증가하고 있음
 - 우크라이나는 '23년부터 방산 포럼 DFNC를 매년 개최하고 있으며 200개사가 넘는 해외기업들이 참가하고 있음

우크라이나 방위 산업 분야 해외기업 참여 동향

기업명	국가명	추진 현황
Czechoslovak Group (CSG)	체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krainian Armor사와 155mm 포탄 공동 생산을 위한 계약을 체결함 • '25년부터 생산을 시작해 약 10만 개 생산, '26년에는 30만 개를 생산할 계획임
방위산업체 KNDS	유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수 및 수리를 담당할 자회사를 키이우에 설립함. Leopard 탱크, CAESAR 포병 시스템, PzH 2000 자주포, Gepard 대공포 등을 보수·수리할 예정임 • KNDS와 우크라이나 방위산업체는 공동으로 155mm 포탄을 생산하고 첨단 제조 기술을 사용하여 예비 부품을 제조할 계획임
Saab	스웨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크라이나에서 제품 생산 예정으로 현재 우크라이나 2~3개 회사와 생산관련 논의 중 • 드론 생산 관련 우크라이나와 협력할 가능성이 높다고 함
Frankenburg Technologies	에스토니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크라이나에서 미사일 방공 시스템 생산을 시작할 것이라 발표함
Northrop Grumman	미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크라이나에서 탄약 생산 예정이며, 중구경 탄약 생산을 시작으로 탱크와 포탄까지 생산 확대 계획 발표(6월 19일) • 미국 국방부와 우크라이나 정부가 합의한 Northrop Joint Production Agreement는 미국 국무부의 우크라이나 방위 산업 발전을 위한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우크라이나의 방위 산업 기반에 20억 달러를 투자하고 미-우크라이나 공동 생산을 합의함
Thales	프랑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랑스 방산기업 Thales, 우크라이나 방산기업과 3건 계약 체결(6월 19일) • ① 방어 시스템용 장비의 공급과 운영을 위한 합작투자 설립 ② 전자전 장비의 유지보수, 테스트, 전문 교육 제공 ③ 탄약 운반 및 반출 가능 무인항공기 공동 개발 및 생산

기업명	국가명	추진 현황
Amentum Services	미국	• Ukrainian Defense Industry와 미국산 장갑차 복구 및 유지보수를 하는 합작투자 설립 의향 각서를 체결함
Rheinmetall	독일	• 첫 번째로 공동 프로젝트인 장갑차 생산 및 수리 작업을 시작했다고 함 • 우크라이나는 높은 국방 프로젝트 비용으로 인해 현재 국가 예산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 없는 상황
Dynamit Nobel Defense	독일	• Ukrainian Defense Industry 협력양해각서 체결
NT Service, Brolis Semiconductors, RSI Europe, DMEXS	리투아니아	• 리투아니아 방산기업 4개사는 Ukrainian Defense Industry 파트너십 체결
Flensburger Fahrzeugbau Gesellschaft	독일	• 방산 품목 수리센터 우크라이나에 건설 예정 • Leopard 1탱크 등 방산품목 수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
Baykar	튀르키예	• 우크라이나 키이우 근처에 드론 공장을 건설 중이며, 약 80%가 완성되어 '25년 8월부터 생산을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 TB2 또는 TB3을 생산할 예정이며, Baykar는 우크라이나산 엔진을 제품 생산에 사용 중

자료: 언론보도, KOTRA 키이우무역관

나. 공급망(자원개발)

□ (광물) 우크라이나는 유럽의 핵심광물 34종 중 22종의 주요 산지로 분류됨

- 희토류, 리튬, 우라늄, 티타늄, 망간, 흑연, 니켈 등이 유럽에서 가장 많이 매장돼 있는 것으로 추정됨

* 미국 지질조사국은 철광석 세계 6위, 티타늄 세계 4위 수준으로 발표('24년 기준)

- 러-우 사태 여파로 생산량 감소(55.5%), 희토류 등 핵심 광물을 포함한 금속매장량의 30~40%는 러시아 점유 중인 동부 지역에 분포해 개발 제한됨
- '25년 5월 1일 미국은 우크라이나와 광물 협정을 체결하고 재건 투자 기금 설립에 합의함. 이는 희토류 원소를 자체 생산하지 않으면서도 중국과의 무역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미국에게 있어 전략적으로 중요한 조치로 평가됨
- 우크라이나 주요 광물의 전체적인 수출 규모는 그리 크지 않으나, 우크라이나산 티타늄을 가장 많이 수입한 국가는 '24년 기준 한국임

* 티타늄 활용 분야 : 전자기기, 항공우주, 의료기기, 에너지 등 미래 핵심 산업

우크라이나 티타늄(HS코드 8108) 주요 수출국

(단위: 천 달러, kg)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8월 누계	
	금액	중량	금액	중량	금액	중량	금액	중량	금액	중량
한국	397.4	45.6	43.4	5.0	5,619.0	2.2	181.6	13.7	-	-
독일	12,155.5	1,164.5	3,128.2	230.0	197.0	0.5	134.6	0.5	115.0	0.4
에스토니아	454.1	83.6	179.0	41.1	159.6	35.0	126.5	27.2	-	-
폴란드	444.7	94.3	560.3	65.2	16.0	1.6	116.5	9.4	128.5	15.0
체코	824.7	119.8	176.0	20.0	4.7	0	19.2	0.2	21.8	0.3

자료: GTA('25년 9월)

- 전문가들은 우크라이나가 향후 글로벌 공급망 경쟁 속에서 전략자원의 안정적 공급처로서 중대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음. 러-우 사태 종결 후, 우크라이나의 광물자원 기반을 복구하고, 국제 협력을 통해 공급망을 안정화하는 작업이 핵심 과제로 떠오를 것이라 전망됨

□ (식량) 세계적인 농업 생산국이자 식량 생산·공급의 중요한 역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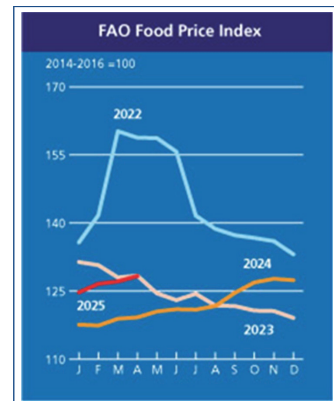
• 우크라이나는 보리, 옥수수, 밀 등의 주요 공급국

- 아프리카, 중동, 아시아 국가들의 중요한 식량 공급국이었으며, 러-우 사태 전 우크라이나는 매년 4억 명에게 식량을 공급했음
- 러-우 사태로 인한 우크라이나의 곡물 수출 중단은 국제 사회에 전례 없는 식량 위기를 불러옴

* '22년 유엔식량농업기구(FAO)의 곡물 가격 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함

- 국제 사회는 식량안보에서 우크라이나의 전략적 역할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우크라이나 농업의 발전은 단지 국내 문제를 넘어 국제 식량 공급망의 안정성과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평가함. 이에 따라 우크라이나 정부와 EU, 국제기구(FAO, 세계은행 등)는 농업 재건을 위한 다양한 협력 프로젝트를 추진 중임
- '24년 한국의 對우크라이나 수입 1위 품목은 사료로 수입 규모는 2억 3,000만 달러이며, 2위는 곡류로 수입 규모는 2억 달러임

〈연도별 FAO 곡물 가격 지수〉



자료: 유엔식량농업기구

주요 국가 기관 지원 현황


국가·기관	지원 현황	지원 내용
우크라이나	Grain from Ukrain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2년 11월 26일 제1차 국제 식량안보 정상회의에서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이 발표한 인도적 식량 프로그램 • 유엔세계식량계획(WFP)과 공동으로 진행 중이며, 프로젝트 참여국이 우크라이나 생산자로부터 농산물을 직접 구매하여 기근 위기에 처한 국가로 전달하는 방식 • 에티오피아, 소말리아, 예멘, 나이지리아, 수단 및 케냐를 포함하여 어려운 식량 상황에 처한 국가에 17만 톤 이상의 밀 전달, 총 60여 척의 선박을 보내 지원할 계획
FAO (유엔식량농업기구)	615개 모듈식 곡물 창고 지원 '25~'26년 2개년 긴급 및 조기 복구 대응 계획 (Two-year Emergency and Early Recovery Response Plan(EERRP) 2025-20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드니프로페트로브스크, 키로보흐라드, 미콜라이우, 오데사, 하르키우, 헤르손 지역의 농업 종사자에게 지원 예정 • 1년 비상 대응 단계 : 전쟁으로 피해를 입은 가장 취약한 농촌 가구와 소규모 농가에게 농업자원 제공 • 오염된 농경지 복구 • 생산 능력 지원, 시장 접근, 기술 지원을 포함한 수년간의 조기 복구 조치
세계은행	“우크라이나 복구 및 회복 프로젝트(UREP)” 내 농업 부문 (Ukraine Agriculture Recovery Inclusive Support Emergency (ARISE) Projec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약 5억 달러 규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가 대상 저리 금융 접근 지원 - 소규모 농가 대상 보조금 지원 - 사업 관리 및 평가 체계 구축 - 비상 상황 대응
IFC (국제금융공사)	민간 농식품 기업 투자 및 기술 현대화 지원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스트리아와 협력해 기후 스마트 농업 개발 프로젝트 시행 예정 • 우크라이나 대표 농업회사 Nibulontk 지원 대출 • 유럽부흥개발은행(EBRD)과 국제개발금융공사(DFC)와 함께 식품 및 농업 기술 분야의 선도적인 국제 기업 MHP사에 4억 8,000만 달러 규모의 자금 조달 패키지 제공

자료: KOTRA 키이우무역관



Ⅲ. 진출전략

1. PEST/SWOT 분석	43
2. 진출전략	45



III

진출전략



1. PEST/SWOT 분석

PEST 분석



정치정책(Political)

- 전시 상황에서 대규모 정부 개편을 단행('25년 7월 16일)
 - 러-우 사태 발발 이후, 처음으로 경제 및 군사 관리 강화를 위한 대규모 정부 개편을 시행
 - 군사력 강화, 경제 회복, 정부 효율성 향상이 주요 목적
 - 현대 우크라이나 역사상 가장 간소화된 내각 구성(정부 부처 수 21개에서 16개로 축소)
- 국가 지역 개발 전략 이행을 위한 '25~'27년 대규모 행동계획 승인(인프라 및 시설 구축,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101개 과제)
- 우크라이나 개혁 매트릭스(Reform Matrix 2022-2032) 공식 도입
 - EU, IMF, 세계은행, 우크라이나 퍼실리티(Ukraine Facility) 프로그램 내에서 권장하는 조치 목록 포함



경제(Economic)

- 러-우 사태 지속과 장기화로 경제상황이 쉽게 회복되기 어려움
 - 국제기구별 경제성장률의 전년 대비 상승 예측에서 하향 변경
 - '26년 성장률은 휴전 전후 재건 혜택을 전제로 5% 예측(유럽부흥개발은행(EBRD))
- 대표 산업인 철강·농업 부문의 심각한 타격, 노동시장 불균형 심화
 - 사태 이전 대비 철강 생산량 65%, 농업 생산량 30% 이상 상실
 - 높은 수준의 실업률, 심각한 전문 인력 부재(동원, 이주 등)
- 해외기업 투자 참여와 시장진출 지원을 위해 노력 중이나 사태 종결 전까지는 대내외 불확실성 증가로 시장진입 리스크 보유



사회문화(Social)

- 러-우 사태로 인한 인구이동, 징집에 따른 인력 감소 등 심각한 노동력 부족 현상
 - 의료, 교육, 건설 등 서비스 부문의 인력 부족 심화로 국민 생활수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침
- 지속적인 에너지 인프라 파괴로 정전, 단수 장기화 및 심각한 수준의 수질, 대기 오염,
- 전쟁 관련 범죄 증가(군용 무기 및 군품 탈취, 불법 무기 밀매 등)



기술(Technological)

- 국가 생존전략 차원에서 방위 산업 활성화 노력, 생산·개발 육성
 - '24년 예산 중 국방 부문 지출액 약 512억 달러(국가 전체 예산의 59.7%)
 - 국방 부문 해외기업들과의 협력 강화
- 군사장비 및 무기 생산 규모 확대, 국내 방위 수요 40% 자체 생산
 - 무인 시스템 제조기업은 500개 이상, 그 중 부품의 80% 국산화(군용 드론의 경우, 우크라이나 민간기업에서 100% 개발·생산)
 - 방위 산업 종사 인력 수는 전쟁 전 7만 명에서 30만 명 이상으로 증가

SWOT 분석

강점(Strength)



- 한국 제품의 선호도 증가, 기술에 대한 높은 신뢰도 등으로 점유율·판매량 증가세
- 국가 선진화 및 현대화 계획 수립,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우리 기업에 기회 요인

약점(Weakness)



- 지원 규모에 따라 주요 공여국(미국, EU 등) 기업들이 재건 참여 우선권 보유
- 자금 확보 문제, 인플레이션, 전력 부족 등으로 교역이 제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음

기회(Opportunity)



- 현지 수요(복구·재건 등)에 따라 국내 기업의 시장 참여 기회 발생
- 우크라이나 정부는 현지 투자환경 조성을 위해 투자 관련 규제 완화 노력 중

위협(Threat)



- 사태 종결 전까지는 대내외 불확실성 증가로 시장 진입에 대한 리스크 보유
- 심각한 재정문제, 경제 회복 및 산업 복구의 어려움은 여전히 과제로 존재

SO 전략(적극적 공격-역량 확대)

- 현지 수요 확대 예상 분야에 따라 기술협력, 투자진출, 설비이전 등 경제협력 확대 기회 발굴
- 종전 후, 프로젝트 수주와 투자가 동반된 산업협력 추진



협력체계 구축,
진출기반 마련

ST 전략(차별화전략-강점 활용)

- 대형 프로젝트보다 긴급품목 위주의 수출 우선으로 고려 필요
- 자원 확보 가능성을 고려한 신중한 사업 추진



산업분야별
시장진출·기회발굴

WO 전략(단계적 시책-기회 포착)

- 타국 기업들과의 협력, 공동사업 참여 필요
- 현지 상황에 맞는 수요분야 예측, 진출방식 및 품목 다변화 추진



수요분야 예측,
새로운 진출방식 발굴

WT 전략(방어/철수-위협 대응)

- 사업 중단/변경 등 리스크 대처방안 강구
- 현지 불확실성을 고려, 단기·중장기적 구분 접근 필요



리스크 요인별
대응방향 설정

2. 진출전략



전략 ①

현지 환경변화에 대응, 수요 확대 분야 진출로 기회발굴



전략 수립 배경

- 사태 종결 전까지 대내외 불확실한 상황을 고려하여 대형 프로젝트 진출보다는 수출에 참여
- 현지 수요 확대 예상 분야에 따라 국내 중소기업의 현지 시장 진출 기회 발생

□ 현지 동향

- 우크라이나의 핵심 산업인 농업의 빠른 생산 회복세
 - 러-우 사태로 우크라이나 산업의 핵심인 철강, 광업, 농업은 심각한 피해를 입었으며, 이들 산업의 회복은 주요 과제 중 하나
 - 식품 산업을 포함한 농업 부문만 러-우 사태 이전 수준까지 회복하며 성장세를 보이고 있음
 - 우크라이나 농업은 그 규모에 비해 저부가가치 곡물과 기름작물 수출에 의존하고 있고, 가공식품은 대부분 수입에 의존
- 지속되는 프리미엄 소비 트렌드와 온라인·디지털 소비 증가
 - 화장품, 건강보조식품, IT·전자기기 등 일부 소비재 분야에서는 ‘프리미엄 제품’에 대한 선호가 여전히 존재
 - 러-우 사태로 인한 스트레스, 해외이동 제한 등에 대한 소비자들의 보상심리로 ‘작은 사치 (Affordable Luxury)’ 개념의 소비는 지속되고 있음
 - 오프라인 유통망이 일부 붕괴되고, 지속되는 공급으로 인해 오프라인 구매가 어려워지면서 온라인 구매 비중이 확대
 - 모바일 결제,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한 소비가 증가하며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디지털 소비 트렌드가 확산

※ 가공식품 수입바이어 V社

- “식품 산업은 우크라이나에서 가장 빠르게 생산을 복구하고 있는 산업으로 정부 지원 및 제품생산 라인 확장 수요가 증가하여 한국 식품, 식품가공 기술, 생산설비 라인에 대한 관심은 앞으로 더욱 증가할 전망”

□ 진출전략 및 유망품목

- 우크라이나 정부는 향후 농업 부문을 복구 및 발전의 핵심 분야로 중점 추진, 값싼 원자재 생산·판매 보다는 식품 가공산업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 중
 - 이에 따라 스마트팜 기술, 농기계 현대화, 가공 및 저장 설비 등 관련 분야의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
 - 국내 기업은 단순히 한국식품 수출보다는 농식품가공 기술이전, 생산설비 라인 수출 및 합작투자 등의 전략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또한 농작업, 건설 등에 활용 가능한 기계류, 농경지 지뢰 제거 사업 등에 진출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소비재 시장은 전쟁 초기 위축 국면을 지나 점차 회복세, '24년 우크라이나 도소매·유통업 매출액은 434억 달러로 전년 대비 15.6% 증가
 - 도시 미식 트렌드(일식·베트남식 → 한식)가 변화하고, 외부 활동 제한으로 '홈코노미' 관련 식품(즉석식품·라면 등 간편식) 소비 증가로 한국 식품 수요 증가
 - * '24년 우크라이나의 한국 식품 수입 비중은 0.1%에 불과하나 증감률은 157%로 1위 차지
 - 우크라이나 화장품 시장의 90% 이상이 수입 제품이며, '24년 기준 한국은 우크라이나의 화장품 수입국 4위(화장품은 '24년 한국의 對우크라이나 수출 1위 품목)
 - 로컬 온·오프라인 유통망 등 다양한 유통 채널과의 협력으로 한국 소비재 입점 추진 및 현지 법률, 인증 절차, 제도적 요건 등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준비 필요

전략 ②

경제안보 관점에서의 핵심 분야별 협력 추진



전략 수립 배경

- 우크라이나는 광물/식량/에너지 등 핵심 분야에서 전 세계 공급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어, 중장기적으로 전략적 관계를 구축하고 진출과 협력 추진 필요
- 곡물 저장시설, 전력망 복구, 광물 개발 등 분야에서 한국 기업의 기술력과 경험 활용 가능

□ 현지 동향

- (광물) 우크라이나는 유럽의 핵심광물 34종 중 22종의 주요 산지로 분류
 - 희토류, 리튬, 우라늄, 티타늄, 망간, 흑연, 니켈 등은 유럽에서 가장 많이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
 - * 미국 지질조사국은 철광석 세계 6위, 티타늄 세계 4위 수준으로 발표('24년 기준)
 - 미국은 우크라이나와 광물협정 체결('25년 5월), 재건 투자기금 설립 합의
 - 우크라이나 주요 광물의 전체적인 수출 규모는 그리 크지 않으나 우크라이나산 티타늄을 가장 많이 수입한 국가는 한국('24년 기준)
 - * 티타늄 활용분야 : 전자기기, 항공우주, 의료기기, 에너지 등 미래 핵심 산업
- (식량) 세계적인 농업 생산국이자 식량 생산/공급의 중요한 역할 수행
 - 유럽의 곡창지대로 불리며 보리, 옥수수, 밀 등의 주요 공급국
 - 러-우 사태로 식량 수출이 제한되면서 세계는 심각한 식량안보 위기에 직면, '22년 유엔식량농업기구(FAO)의 곡물 가격 지수는 사상 최고치 기록
 - * 국제 사회는 식량안보도 군사적, 에너지적 안보만큼 중요하다는 사실을 재인식
 - '24년 한국의 對우크라이나 수입 품목 1위는 사료(2억 3,000만 달러), 2위 곡류(2억 달러)
- (에너지) 에너지 자원, 지정학적 위치 등으로 EU에 중요한 역할
 - 유럽 최대 규모의 가스 저장시설 보유(세계 3위), 생산량 유럽 2위
 - 재생에너지 바이오메탄 개발 본격화, 그린 수소 생산 잠재력 보유
 - * '24년 9월 바이오메탄 생산 시설 가동 시작, '25년 2월 독일로 첫 수출
 - EU는 우크라이나가 에너지 공급경로뿐 아니라, 유럽의 에너지 안보에 기여할 수 것으로 기대하며 협력 강화

□ 진출전략 및 유망품목

- 우크라이나는 향후 글로벌 공급망 경쟁 속에서 전략자원의 안정적 공급처로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됨
 - 러-우 사태 종결 후 광물자원 기반 복구 및 국제 협력을 통한 공급망 안정화가 핵심 과제로 떠오를 것으로 예상
 - MSP(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 의장국은 한국) 등 다자협약체 활용, 개발 잠재성이 높은 프로젝트 발굴 및 공동 조사/탐사 진행
- 우크라이나 정부와 EU, 국제기구(FAO, 세계은행 등)는 우크라이나 농업 재건을 위해 다양한 협력 프로젝트 추진 중
 - 현지 농기업과의 협업, 곡물·유지(油脂) 분야 기업 인수 등 해외 곡물사업 거점 마련 추진
- 우크라이나와 EU 간 에너지·인프라 통합 전략은 한국에게 유럽 진출의 간접 루트가 될 수 있으며, 중장기적으로 우크라이나를 동유럽 거점시장으로 활용

전략 ③

지정학적 특수 수요 기반, 방위 산업 분야 협력 확대



전략 수립 배경

- 러-우 사태 이후 우크라이나는 방위 산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 급속히 성장 중
- 국가 예산의 절반 이상을 방위 분야에 할당, 3년 만에 우크라이나 방위 역량이 35배 성장

□ 현지 동향

- 우크라이나는 '26년 국방 예산에 683억 달러(국가 전체 예산의 58% 이상) 책정, 이는 GDP의 27.2%에 해당
 - 군사 장비 및 무기 생산 규모가 확대되면서, 국내 방위 수요의 약 40%를 자국 내 생산으로 충족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
 - * 군용 드론의 경우, 거의 100%가 우크라이나 민간기업을 통해 개발 및 생산 중
 - 국방 부문 해외기업들과의 협력 강화
 - * Rheinmetall(독일) : 장갑차 및 탄약 생산공장 건설, Thales(프랑스) : 전자전장비, 통신장비 생산 관련 합작투자, Northrop Grumma(미국) : 중구경 탄약 생산 계획
 - * '25년 우크라이나 방산기업 Ukrainian Defense Industry, 세계 100대 방산기업 중 49위 차지
- 해외기업들의 우크라이나 방위 산업 관련 프로젝트 참여 증가
 - 우크라이나는 해외기업들과 함께 'Build with Ukraine'와 'Build in Ukraine' 전략 이니셔티브 추진 중
 - * Build with Ukraine : 동맹국 영토 내에서 우크라이나 무기의 공동 생산을 추진하는 프로그램
 - * Build in Ukraine : 해외방산기업들이 우크라이나 내에 직접 생산시설을 설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
 - 우크라이나는 '23년부터 방산 포럼 DFNC를 매년 개최('25년 20개국 900여 개사 참가)
 - 전자·장갑차 수리, 드론·탄약 생산에 관한 계약 및 합작투자, 기술교류, 부품 공급 등에 대한 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이 체결되었음

□ 진출전략 및 유망품목

- 우크라이나는 자체 국방력 강화 노력으로 장비 개발·생산, 제조 육성 등에 힘쓰고 있어, 우리 방산기업은 관련 부품 공급 및 기술 교류 분야에서 유망
 - 기술 및 제품 성능 등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데이터 자료 사전 준비
 - 입찰 형태의 프로젝트 참여를 위해 현지 요청에 신속한 대응 필요
- 러-우 사태 장기화로 따른 방산·보안 현지 수요 확대에 따른 협력기회 발굴
 - 탄약 생산, 전자전 장비 개발, 공중 및 해상 드론 개발, 무기 수리 등 분야 유망
 - 감지 시스템, CCTV, 사이버보안 시스템 등 감시·보안 장비 수요 증가



차량 부품

- 선정사유** • 화물차와 승용차 보급이 다시 늘어나면서 차량 부품에 대한 수입 수요 증가하고 있음
- 시장동향** • 우크라이나 자동차 부품 시장의 80% 이상이 수입산 제품임
 • '22년에는 부품 수입기업 상당수가 영업을 중단하는 등 시장이 위축됐으나 '23년부터 다시 회복되기 시작함
 • '24년 기준, 우크라이나 자동차 부품(HS Code 8708 : 트랙터, 대중교통 승용차, 자동차, 화물 운송 자동차, 특수 목적 자동차용 부품 및 액세서리) 수입 규모는 6억 7,7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17.9% 증가함
- 경쟁동향** • 주요 수입국은 중국(28.1%), 독일(11.1%), 튀르키예(10.5%), 폴란드(7.2%)
- 진출방안** • 바이어가 한국 기업과 거래하고자 할 때 가장 부담을 느끼는 것이 물류비용과 시간임
 • 한국 부품에 대한 수요가 있지만 품질 경쟁력과 가격 경쟁력 필요

의료기기

- 선정사유** • 러-우 사태 후 부상자 치료·재활에 필요한 의료기기 부족 현상이 심각하고 의료 재건 사업이 추진되며 꾸준히 수요가 있음
- 시장동향** • 5,000여 개의 국공립 의료기관이 있었으나 러-우 사태 후 파손된 시설이 많고 남아 있는 의료 기관의 의료기기 70% 이상이 노후화된 상태임
 • 국가 예산이 대부분 국방 부문에 투입되고 있어, 의료 부문은 인도주의적 지원으로 진행되고 있음
- 경쟁동향** • 중국(26.0%), 독일(17.3%), 일본(10.4%), 미국(6.9%)
- 진출방안** • 의료시설, 국립 병원 납품 로컬 벤더를 대상으로 한국산 제품 마케팅이 필요

화장품

- 선정사유**
- 우크라이나는 러-우 사태로 인한 경기 침체에도 화장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수요가 회복되고 있음
 - 경기불안 속에서 많은 소비자들이 고가의 미국 및 유럽 브랜드에 대한 대안을 찾고 있어 한국 화장품에 대한 수요는 계속 증가할 예상됨
- 시장동향**
- '22년 대비 '23년 화장품 제품 수입 증가율은 85.3%, 러-우 사태 전인 '21년과 대비해도 8.3% 수입이 증가함
 - '24년 한국산 화장품(HS코드 3304) 수입 규모는 약 3,552만 달러로 '23년 3,408만 달러 대비 4.21% 증가함
- 경쟁동향**
- 폴란드(16.3%), 프랑스(14.2%), 중국(14.1%), 미국(7.2%)
- 진출방안**
- 화장품 시장에서 한국 화장품은 포화상태로 제품 경쟁력 있어야 하며, 마케팅·홍보 지원도 필요함
 - 온라인 판매가 많아 샘플 파우치를 제공하는 것도 중요함. 우크라이나에서는 고객이 테스트용으로 샘플 파우치를 구매하여 사용해 보고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가 많음

전력설비

- 선정사유**
- 러시아의 에너지 인프라 대공격으로 전력설비가 많이 손상됨. 변압기·차단기·케이블·배전반 등 설비 전반에 걸쳐 복구가 필요하므로 송배전기와 관련 부품 수요가 있음
- 시장동향**
- 러-우 사태가 시작되면서 전력 시스템 발전설비 용량 30GW를 상실함. '22~'23년 동안 발전 설비 용량 21GW를 상실, '24년 9GW를 상실한 것으로 추정됨
- 경쟁동향**
- 에너지 관련하여 EU와 밀접한 관계가 있어 EU의 지원이 많고 EU와 공동 프로젝트도 진행하고 있음
- 진출방안**
-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자금을 활용한 전력망 복구사업 수요 발굴이나 주요 공여국 기업 컨소시엄을 활용



인프라

- 선정사유**
 - 러-우 사태로 우크라이나 인프라 피해 규모가 커 재건 사업은 주로 인프라 구축일 것으로 예상됨
- 시장동향**
 - 전력 산업, 물류시설, 의료시설, 정보통신, 도로건설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재건 프로젝트가 활발히 진행될 것으로 예상
- 경쟁동향**
 - 미국, EU 국가 등과의 경쟁 발생 가능
- 진출방안**
 -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통한 진출이나 미국, 유럽 등의 다국적 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등 협력체계 구축하여 참여하는 방안이 필요

의료용 소프트웨어

- 선정사유**
 - 디지털헬스·의료소프트웨어 분야에서 우크라이나 정부가 적극적으로 정책을 펼치고 있음
- 시장동향**
 - 코로나19 이후 우크라이나 디지털헬스 시스템이 본격적으로 확장 중이며, 원격진료, 모바일 앱 기반 의료서비스, 의료데이터 플랫폼 등 다양한 형태로 발전하고 있음
- 경쟁동향**
 - 우크라이나 내 IT 서비스 및 소프트웨어 개발 역량이 높아 현지 기업과 외국 기업 간 경쟁이 존재함
- 진출방안**
 - 우크라이나 정부기관 및 현지 의료 IT 기업과 협력하여 규제, 인증, 현지화 문제를 해결하고, 파일럿 프로젝트를 통한 레퍼런스 확보와 점진적 시장 확대 전략 추진

의료관광

- 선정사유**
 - 러-우 사태로 의료 인프라에 제한이 있으며, 고급 치료와 특수 시술 수요가 국내에서 충족되지 못하는 경우가 존재
- 시장동향**
 - 우크라이나 의료관광 수요는 전통적으로 동유럽 및 유럽 일부 국가 환자 중심이었으나, 러-우 사태로 인한 의료서비스 제한으로 해외 치료 옵션 탐색이 늘어나고 있음
- 경쟁동향**
 - 터키, 폴란드, 헝가리, 체코 등 동유럽 국가들이 유사 치료 분야에서 가격·거리 경쟁력 보유
- 진출방안**
 - 우크라이나 의료관광 플랫폼, 소셜미디어, 온라인 포털, 현지 에이전시를 통해 한국 의료관광 상품 홍보
 - 현지 여행사, 에이전시, 보험사와 협력하여 안전·편의성을 높임



주요 정치 일정

주요 행사	일시(잠정)	비고
Recovery Conference	미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5년 4회째 개최 • 장소는 폴란드
Rebuild Ukraine 2026	11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소 미정

주요 경제·통상 일정

주요 행사	일시(잠정)	비고
Foreign Investment Congress	5월 28~29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5년 2회째 개최 • 참가 규모는 '25년 기준 28개국, 185명 참가

유망 전시회 캘린더

주요 행사	일시(잠정)	비고
KyivBuild 2026	2월 18~20일	대표적인 건설·건축 전시회
World Food Ukraine	10월	대표적인 식품 전시회
Aqua-Therm Kyiv	5월 12~14일	HVAC, 물공급·처리, 난방·냉방 및 재생에너지 전시회
InterCHARM Ukraine	9월	미용·뷰티 전시회 우크라이나 내 최대 규모
PUBLIC HEALTH	미정	대표적인 의료산업 전시회

〈작성자〉

연번	작성자	직책	소속	Tel	Email
1	조경진	관장	키이우무역관	+380-44-495-2951	kencho@kotra.or.kr
2	최한나	매니저	키이우무역관	+380-44-495-2951	hannahchoi@kotra.or.kr

2026 우크라이나 진출전략



ISBN : 979-11-402-1523-2 (95320)